

서울골목디자인 개발 연구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

2014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
쪽방거주 독거노인의 세간살이 수납을 위한
가구디자인 연구

2014

일 러 두 기

이 책은 (재)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팀에서 수행한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
- 쪽방거주 독거노인의 세간살이 수납을 위한 가구디자인 연구’의
내용을 엮어서 만든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골목디자인 개발 연구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

- 쪽방거주 노인의 세간살이 수납을 위한 가구디자인 연구

연구기간 : 2014. 8. 1 ~ 2014. 12. 31(5개월)

연구진

서울디자인재단

강병길 (시민디자인연구소장)

신윤재 (시민디자인연구팀 팀장)

강지혜 (시민디자인연구팀 선임)

외부참여연구원

책임연구원 : 양영완 (홍익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프로덕트디자인전공 교수)

연구원 : 이상훈 (홍익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프로덕트디자인전공 교수)

연구보조원 : 백승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김기현, 문석진 (DESIGN METHODS)

연구보조원 : 이상필, 남정모 (DESIGN METHODS)

자문위원 (성명 가나다 순)

김주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교수)

문 찬 (한성대학교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

박혜선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

서수경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 교수)

육호준 (가천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이경돈 (신구대학교 공간디자인과 실내건축전공 교수)

이재준 (새동네연구소 소장)

주대원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차 례

요약 및 정책건의	8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4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서울시 정책의 패러다임	18
2.1 2030 서울플랜의 고찰	18
2.2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디자인의 필요성	21
제3장 쪽방거주 독거노인의 환경 분석	35
3.1 서울시 쪽방거주 독거노인 현황	35
3.2 대상공간의 환경 분석	48
3.3 종합 및 시사점	65
제4장 디자인모델 개발 연구	72
4.1 디자인 콘셉트의 제안	72
4.2 프로토타입 개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80
4.3 프로젝트의 보완점 및 기대효과	100
제5장 결론 및 제언	102
부록	105
자문위원 회의록	105
참고문헌	120
Abstract	122

요약 및 정책건의

(재)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골목이 가진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각 골목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발견해 서울시의 디자인 자산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골목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골목의 가치를 발견하여 시민의 삶과 골목이 담고 있는 공간적 맥락을 이어주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골목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서울골목디자인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 계획 사업이다. 프로젝트가 시행된 첫해인 2012년에는 「서울골목디자인 연구·조사」를 비롯해 「국제골목 사례연구」, 「서울골목디자인 시범사업」, 「서울골목디자인 서비스디자인 툴킷」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3년에는 골목 보존과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련의 대안을 찾고자 「골목쓰레기 배출시스템 개선 디자인모델 연구」를 진행했으며, 서울 골목의 자산 공유 및 골목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국제 골목 컨퍼런스, 골목 담사, 골목 사진전 등의 행사도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골목을 정주환경으로서의 주거 개념으로 확대하여 주거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인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골목 대표 주거유형인 1평 남짓 쪽방과,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이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의 출발점은 소외된 계층, 특히 60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와야 하는 것이며, 생색내기용이 아닌, 상대방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낮은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과 구현을 위한 디자인 행위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흔히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기초단위 생활공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의 소외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연결고리로서 ‘프로보노(probono)’ 개념의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진은 독거노인이 바라고 있는 작은 희망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들에게 ‘편지’ 한 통을 배달해드리는 스토리텔링을 기획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편지는 <片紙>가 아닌, <片志>이다. ‘편지(片志)’는 유닛 구조(片) 방식의 조립식 수납가구 패키지를 배달하는 정성 어린 마음(志)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메타포(metaphor)이다.

편지(片志)는 각기 다른 형태의 유닛(unit)과 부자재로 조립되는 놀다운(knock down) 방식의 수납용 시스템 가구이다. 주재료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이다.

본 연구진이 수납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수납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및 사용빈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대상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어지럽게 쌓여 있는 세간살이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수납에 기초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집배원의 역할은 지역별 쪽방상담센터의 직원이나 관련 단체의 자원봉사자, 혹은 공익요원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센터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디자인 결과물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다. 주요 사용 대상자인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또한 제품의 구입이 가능하다. 판매 수익금은 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어 쪽방 문화의 삶을 변화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소 심각한 주제에서 출발하였지만, 경쾌하게 풀어나가면서 새로운 가치와 의의를 창출하는데 집중하였다. 앞으로 <편지 프로젝트>가 계속 선순환 될 수 있는 디자인 문화운동(movement)으로 확산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의 조성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독거노인들이 언젠가 찾아올 희망을 꿈꾸며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듯, 우리가 제안하는 이 작은 ‘편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편지(片志)>는 서울시 열린정부 3.0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시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확산 가능성과 미래에 그려질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하며,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

쪽방거주 독거노인의 세간살이 수납을 위한 가구디자인 연구

요약 및 정책건의

2014. 12. 31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소

1. 연구개요

·연구명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 - 쪽방거주 독거노인의 서간실이 수납을 위한 가구디자인 연구

•연구 기간

2014년 8월 ~ 12월 (5개월)

•여러 배경

- '서울골목디자인 가발 연구'의 일화으로 미래 정주환경으로서의 주거개념 확대



- 1평 쪽방, 2평 고시원, 원룸 등 소형주택 거주자들의 1평의 의미와 내용,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디자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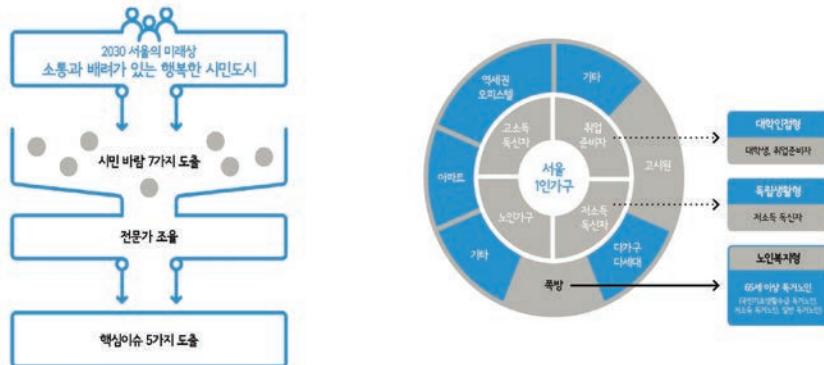
•연구 목적

- 변화하는 미래 주거 수요에 대한 소형주택 거주자의 주거공간의 대안 제시
- 삶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삶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와 정착방향 제시

서울시시정운영계획中：‘주거미래가치및도시활력제고

2 현황분석

· 서울시 정책 핵심이슈 분석 및 1인 가구 환경 분석



· 핵심이슈 中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

- 목표 :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1,110,995명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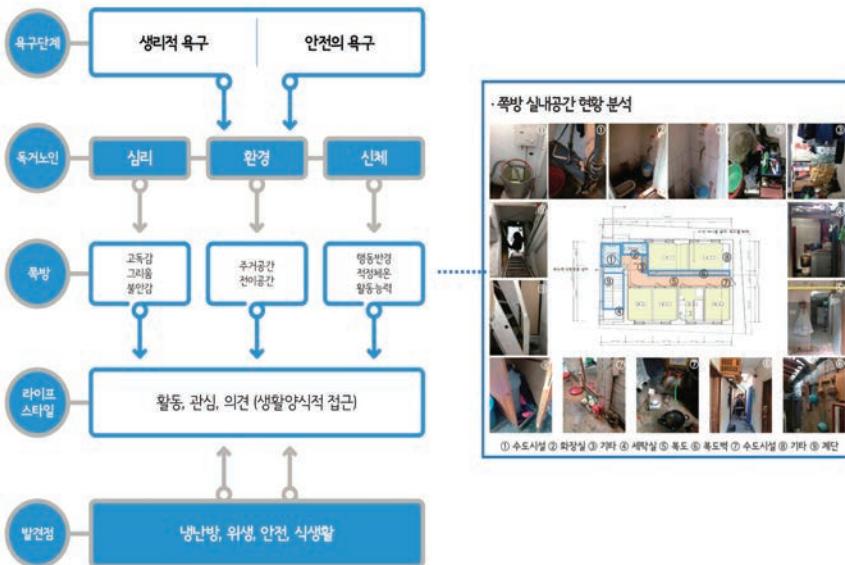
· 서울시 독거노인 수 238,551명 (2012년 기준)

· 서울시 독거노인 비율 = **21.47%** (2012년 기준)

독거노인 비율 = {독거노인 수 ÷ 65세 이상 주민 수} X 100

3

3. 독거노인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분류



4

4 디자인 방향성 도출

· 쪽방거주 독거노인 세간살이 분류에 따른 디자인 방향성 도출



fact 01

- 억지사지(易地思之) 개념 필요성
- 대상의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콘셉

fact 02

- 수납을 바탕으로 하는 정리정돈의 필요
- 어지럽게 산재해 있는 수많은 세간들의 효율적 보관
- 소형, 중형물을 통의 사이즈 별 구분
- 일상 필수품, 계절용품 등 사용 빈도수에 따른 접근

keyword

- Low-Cost Production
- Unit & Module structure
- Flexible design
- Easy
- Casual

5

5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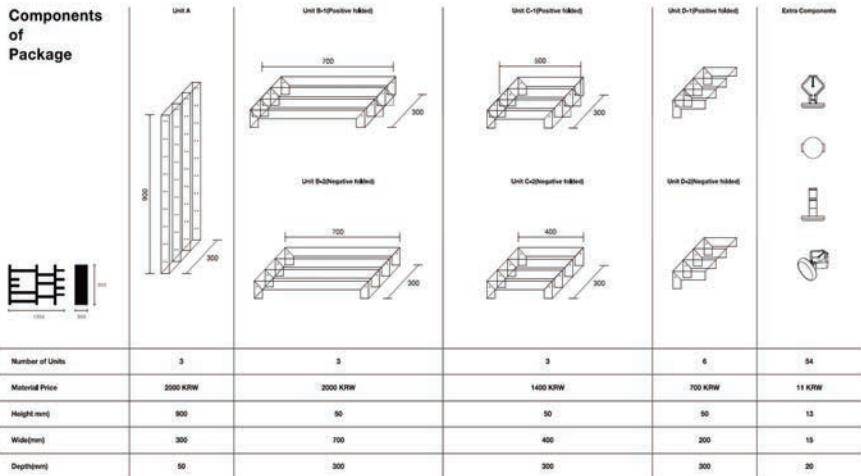
· 스토리텔링 : 편지(片志)

- 유닛 구조(片)의 방식의 조립식 수납가구 패키지를 배달하는 정성 어린 마음과 뜻(志)을 상장하는 은유적 메타포(metaphor)



· 패키지 구성

Components of Package



종로50가길
Jong-ro 50ga-gil

16

제1장
서론

김치지급

1.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1.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의학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노동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면서 각종 사회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한 부양과 배려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서울플랜」의 목표는 복지사회 구현과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제고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 3.0」이 추구하고 있는 국민복지정책과 맥을 같이 하며, 이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시는 시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창출과 제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 특히 60세 이상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정한 서비스」를 제고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초단위 생활공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역시 시민 개개인이며, 서울시가 지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최우선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와야 하는 것이며, 생색내기 용이 아닌 상대방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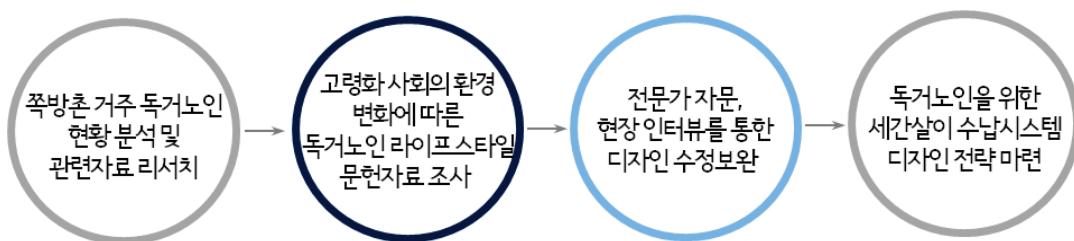
정으로 소통하려는 낮은 자세에서부터 비롯된다.

최근 들어 회자되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service design)’이라는 용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IT 관련 기기의 디지털 인터랙션(interaction) 중심의 화려한 수식어들로 포장되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성되고 유지되는 인간 본연의 감성을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디자인의 제공과 구현을 위한 디자인 행위는 인간 중심이라는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흔히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기초단위 생활공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된 감정과 정신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연결고리로써 프로보노(probono) 개념에 기반을 둔 디자인을 제안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아이템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소형주택, 독거노인, 고령화 사회 등을 키워드로 기존 학위 논문과 학회 논문, 단행본 등 문헌자료와 서울연구원, 서울디자인재단 등 연구기관의 간행물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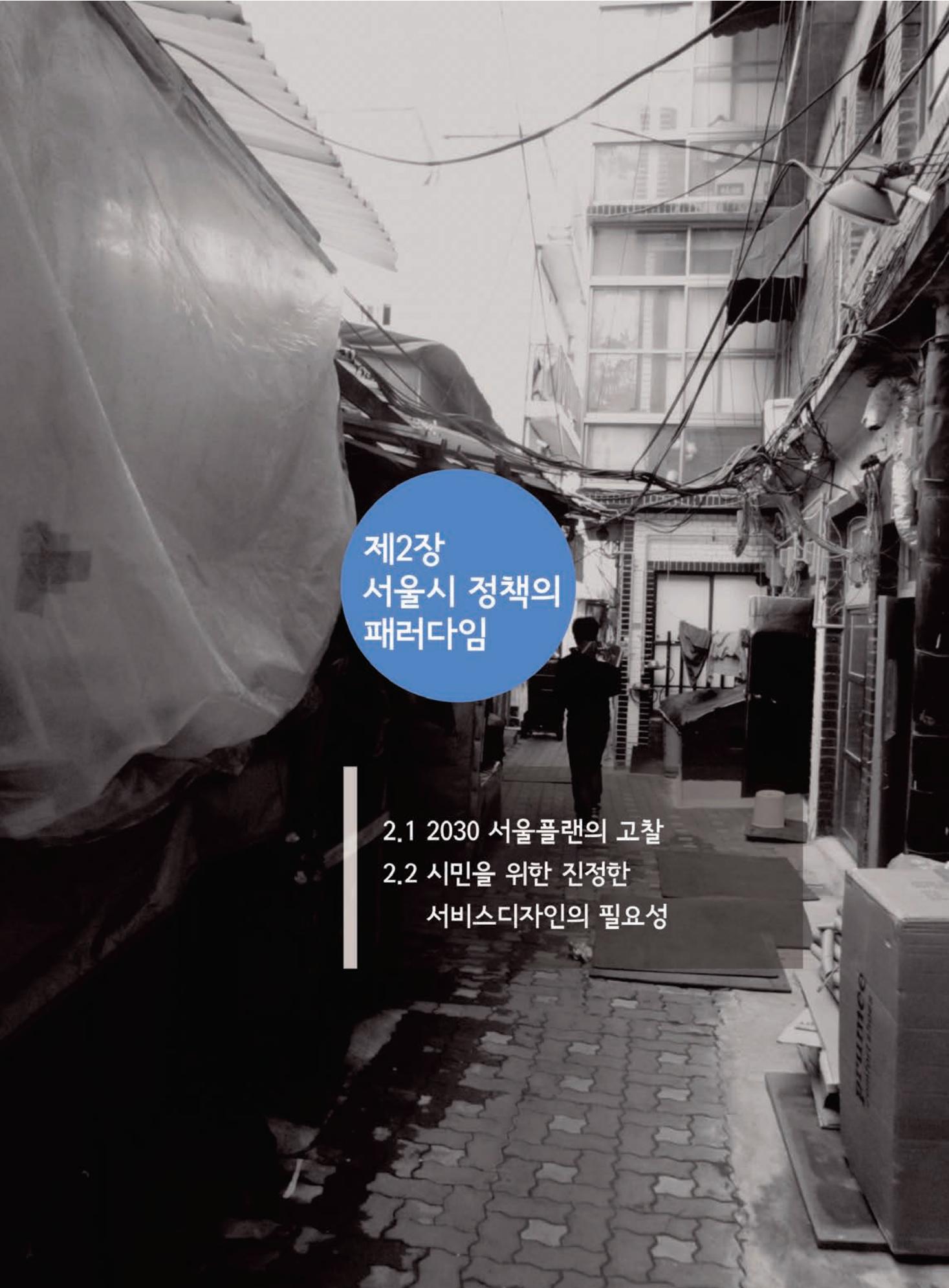
연구진은 연구의 실증적 결과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연구 대상 지역인 종로구 창신 1동 일대를 방문하였다. 동대문쪽방상담센터의 협조를 얻어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독거노인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였다. 대상 지역 거주 독거노인들의 일과를 동행하여 관찰하고 인터뷰하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관할 지역 쪽방상담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로부터도 쪽방 거주 독거노인들에 대한 전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도출하였으며 시행착오와 피드백을 거치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세간살이를 보관하고 수납하는 수단과 방법의 부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적합하도록 조립과 분해가 쉽고 보관과 확장이 용이한 시스템 수납가구의 디자인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진행 과정에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존의 유사 연구사례와 차별화된 콘셉트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최종 결과물은 아름답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디자인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최종 결과물이 기존의 수납가구와는 차별화 되는 감성제품으로서 주 사용자인 독거노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콘셉트를 설정하였다.

사용재료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을 선택하였다. 폴리프로필렌은 PB(particle board)나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등 기존의 값싼 플라스틱 재료와는 달리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아 건강에 해롭지 않고 위생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료의 강도와 하중을 시험하기 위해 수차례 구조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게와 크기가 다른 세간들을 포괄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유닛과 패키지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제2장 서울시 정책의 패러다임

- 2.1 2030 서울플랜의 고찰
- 2.2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디자인의 필요성

제2장 서울시 정책의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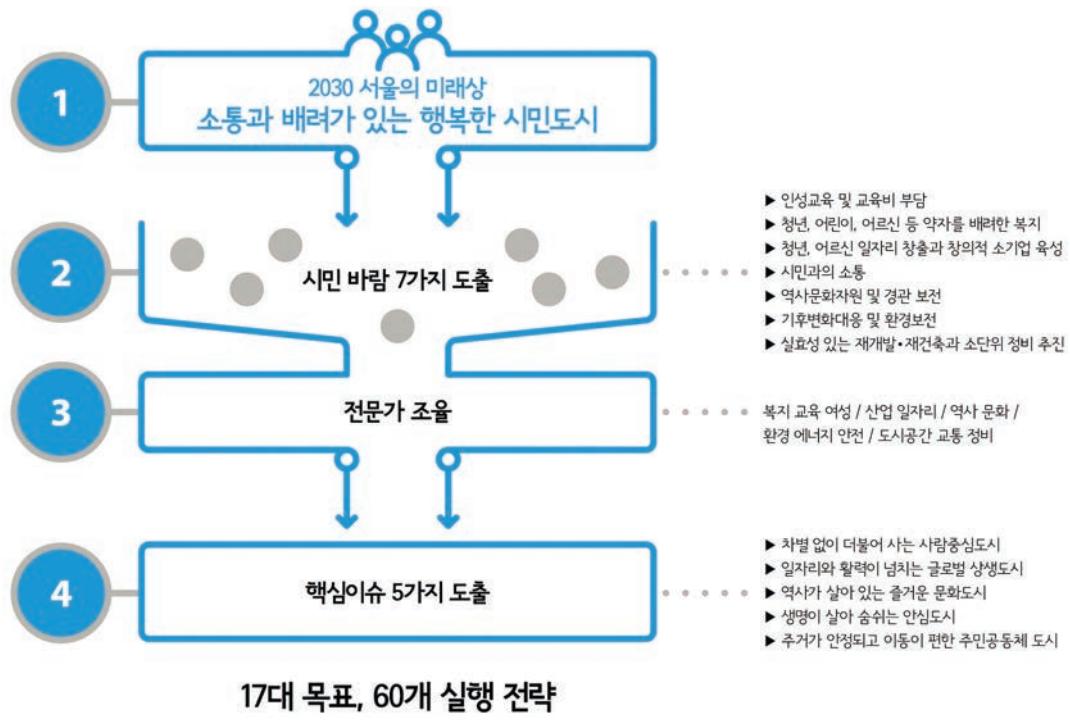
2.1 2030 서울플랜의 고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는 주택, 공원, 교육,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한다. 본 연구인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의 주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주택과 복지 분야 카테고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 (1) 시민이 주가 되는 계획으로서 서울의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 (2) 많은 사람이 함께 공감대를 가지는 계획으로서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계획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다.
- (3)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지는 진정성을 가진 계획으로서 단순하게 청사진으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실현성이 강화된 것을 의미하며 계획의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여건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람의 중요함, 함께 한다는 것, 공감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2030 서울플랜」이 지향하는 가치이다. 무엇보다도 서울 시민 참여단이 직접 선정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슬로건은 서울플랜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림 2> 핵심이슈 선정과정¹⁾

위에서 도출된 5가지 핵심이슈 중에서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는 핵심이슈 1인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핵심이슈 1의 하위 목표 3인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서울시의 세부 실행 전략이다.

1) 서울특별시, (2014), 2030서울플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p43. 2014.4.

5가지 목표		17개 전략
목표1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1-1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1-2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통합 문화 조성
목표2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2-1 효율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사각지대 해소 2-2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3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및 시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
목표3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3-1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3-2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3-3 나눔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 복지공동체 구현 3-4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조성
목표4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4-1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지원 4-2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4-3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기능 회복 지원 4-4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
목표5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5-1 성평등한 가족 · 사회문화 조성 5-2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 5-3 위험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5-4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구현

<표 1> 핵심이슈 1.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에 해당하는 목표와 전략

핵심이슈 1에 해당하는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²⁾

- (1)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란 차별이 아닌 평등, 승자 독식이 아닌 나눔, 물질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도시를 의미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회로서 본 연구의 대상인 쪽방촌의 독거노인 등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애, 협동, 나눔이 더욱 필요하다.
- (2) '사람중심의 도시'란 성장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며,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 '사람다움'을 인정받고 구현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이 모든 구성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
- (3)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마련한다. 2030년 초고령화, 가족기능 약화 현상이 가져올 사회 균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

2) op. cit., p38.

한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의 구축과 균형 잡힌 복지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 (4) 근로 불가능한 최저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 가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한다. 특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한 빈곤노인 지원을 확대한다.
- (5) 현재 빈곤노인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빈곤 가구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근로 가능한 저소득 노인에게 공공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원을 확보하고, 예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교육을 실시하여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2.2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디자인의 필요성

01 서울시 열린정부 3.0의 지향점

시민 공감 · 공유의 서울시 열린정부 3.0 종합계획(2013년 7월)이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다.

- 정부 3.0 패러다임을 우리시의 공유, 소통, 혁신, 열린 시정 가치로 확대 승화한 「서울시 열린정부 3.0」 추진

(1) 행정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 복지, 경제, 교통, 환경 등 시민 사회문제가 점차 복합적으로 얹히면서 공공기관의 독자적인 행정만으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 균원적인 해결을 위해 시정의 주인인 시민뿐만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시설물, 사물, 환경 요인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발전된 IT 기술은 정보소통의 범위를 사람들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생산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서울시의 현주소와 시민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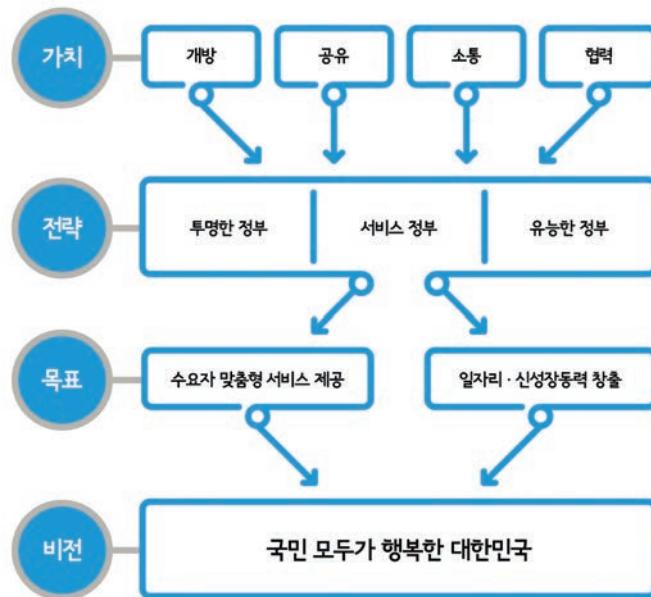
- 시민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복지, 노후, 전월세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으며, 이에 대한 새롭고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

(3) 서울시 열린정부 3.0 추진방향

- 행정정보 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시민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 시민 중심 개인화·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열린정부 3.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 비전과 전략



<그림 3> 열린정부 3.0 비전과 전략

-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행정정보 전면공개로 시민 알권리 총족 2.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 활용 활성화 3. 시민 소통·협력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4. 지식통합으로 협업 문화 확산 5. 협업·소통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6. 빅데이터 중심의 新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7. 시민 맞춤형 복지·민원 서비스 제공 8.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원 9.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표 2> 중점 추진과제

본 연구는 위 중점 추진과제 중 9번 정책인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집중하였다. 즉, 쪽방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열린정부 3.0이 지향하고자 방향을 살펴보았다.

- 1) 각종 중앙정부의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을 대상으로 부가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가사지원,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2) 현재 각 복지 대상별로 개별적인 형태로 건립되고 있는 복지시설을 대신하여 다양한 연령계 층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을 확대한다. 복지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복합 커뮤니티화하여 세대통합형, 지역사회 개방형 주민복지시설로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3) 노인시설과 아동청소년시설의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노년단체와 청소년단체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지원, 노인과 청소년 합동 자원봉사활동 발굴, 세대 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세대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및 육성 지원한다.
- 4) 공공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 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거점기관을 마련한다. 거점기관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의 발굴과 지원 활동을 촉진하며,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를 조성한다.
- 5) 소외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 네트워크의 인력, 재능, 물품 등을 지원한다.
- 6) 시민 단체, 주민 봉사조직,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종교기관, 복지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각지대 주민과 복지욕구를 발굴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7) 행정기관은 민간의 조직관리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민간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8) 지역 내 나눔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복지네트워크와 정보를 공유한다.

02 국내·외 서비스디자인 모범 사례

(1) 영국 이노센트(innocent) 社의 ‘더 빅 니트(The Big Knit)’ 캠페인

해마다 11월이 되면 영국의 음료회사 ‘이노센트(innocent)’는 텔모자를 쓴 스무디(smoothie) 병을 판매하는 ‘더 빅 니트(The Big Knit)’ 캠페인³⁾을 개최한다.

외로운 노인들이 재능을 기부해 텔모자를 만들어 스무디 병에 씌워 파는 행사이다. 차가운 이미지의 자사 냉장음료들을 염지손가락만한 수제 텔모자로 씌워 따뜻한 이미지로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본 행사의 시발점이었다. 한 병씩 팔릴 때마다 회사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들을 돋는데 50파운드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캠페인이 인기를 끌면서 영국 전역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Age Concern’⁴⁾이라는 노인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속한 할머니들이 직접 텔실과 뜨개바늘을 사용하여 모자를 만들어 이노센트에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4> 더 빅 니트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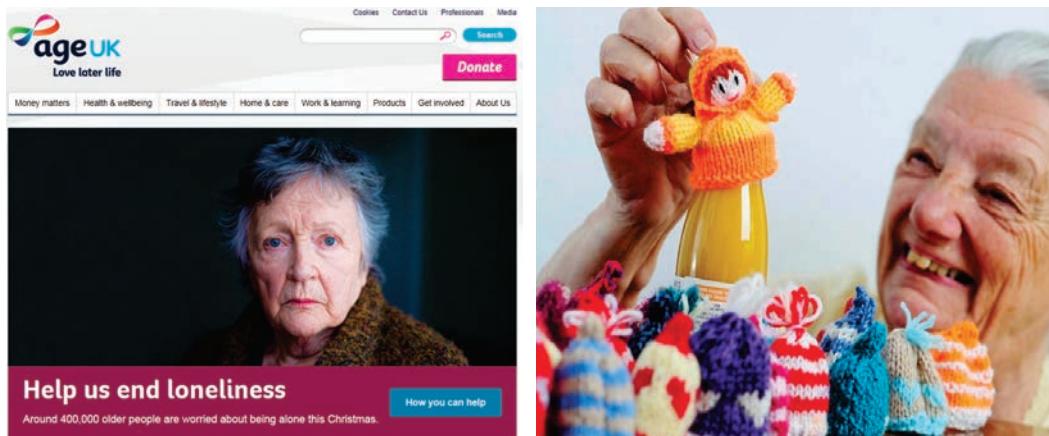
런던 등의 대도시 매장에서는 특정일에 이들 매장 일부에 이노센트 모자를 만들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여 뜨개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뜨개질 초보자들도 친절한 안내원의 가르침에 따라 제공

3) <http://www.thebigknit.co.uk>

4) <http://www.ageuk.org.uk>

된 뜨개바늘, 텔실 등을 사용하여 직접 이노센트 음료수용 모자를 만들어 볼 수 있다. 회사 웹사이트(www.innocentdrinks.co.uk)에도 모자를 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독특한 아이디어 보다 더욱 값진 것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일 것이다. 이노센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복잡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단지 지나쳐 버리기 쉬운 일상의 작은 부분을 담아낸 것뿐이다. 그러나 행복은 이러한 일상성이 담고 있는 삶의 작은 기쁨에서 시작된다.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소박하지만 세심한 배려로 이에 해당한다. 이노센트 서비스디자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매 시즌마다 진행되는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통해서 이노센트의 스토리텔링은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참여와 개방의 정신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의한 브랜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⁵⁾



<그림 5> 노인자선단체 Age Concern의 홈페이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또한 이노센트의 ‘빅 니트 캠페인’처럼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민들을 함께 참여시키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시민들과 프로젝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창의성, 협력, 소통과 참여, SNS 활용, 동기 부여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는 더 빅 니트 캠페인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다. 더 빅 니트는 ‘음료수에 텔모자를 씌워준다’라는 재미있는 발상과 추운 겨울에 독거노인들을 지원한다는 사회적 메시지,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확산 기반을 통해서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확대시켜왔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최근 신뢰와 소통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사회 공헌을 위한 소통의 방식도 일방향성에서 쌍방향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⁶⁾

5) 100% 순수를 마시다. 이노센트, <http://media.jungle.co.kr>, 2008.10.07.

6) 위키트리(wikitree), (2014), ‘텔모자 쓴 음료수병’에 숨겨진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비밀, 2014.6.19.

(2) 네덜란드 장례회사 델라(DELA)社의 ‘Why wait until it's too late? Say something wonderful today.’ 캠페인

네덜란드 장례회사인 ‘델라(DELA)’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임종 또는 추모의 순간에 서로에게 진심을 전달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민들에게 평소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과 더불어 델라는 네덜란드 브랜드 선호기업 TOP10 진입하였고 회원 가입자가 50% 증가하는 등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⁷⁾

우리 사회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what)보다 어떻게 하느냐(how)가 더 중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시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활동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델라의 캠페인을 통해 가족은 물론 소외되었던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은 현시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이는 서울시가 지향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디자인에도 반영할 수 있다. 비록 무거운 주제일지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보람 있는 디자인이 될 것이다.



<그림 6> 네덜란드 장례회사 DELA의 홈페이지

7) Why wait until it's too late? Say something wonderful today. <http://www.dela.nl>

(3) 네덜란드 고우 슬로우 레스토랑(Go Slow Restaurant) 프로젝트

네덜란드의 ‘드룩 디자인(Droog Design) 스튜디오’⁸⁾는 은퇴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슬로우 레스토랑(Slow Restaurant)’을 운영하였다. 한 달간 캐주얼(casual) 이벤트로 기획된 레스토랑 임에도 불구하고 요리사, 웨이터, 웨이트리스, 음악연주가, 사진작가 등 레스토랑 오픈을 위한 구인광고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거 지원하였다. 나이에 관계없이 여전히 사회에 무엇인가를 기여하길 원하는 활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노인들을 뽑았다.

레스토랑의 이름이 ‘슬로우(slow)’인 이유는 느리지만 따뜻한 노인들의 정과 사랑을 일반 시민들과 천천히 나누기 위함이다. 레스토랑의 음식은 간단한 메뉴지만 네덜란드 전통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방문한 시민들은 느린 서비스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그림 7> 네덜란드 고우 슬로우 레스토랑

8) www.droogdesign.nl

도록 디자인 스튜디오는 임시 레스토랑의 오픈을 위한 간단한 인테리어, 레스토랑 유니폼, 메뉴판 등의 디자인에만 관여하였으며,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였다. 맡은 일 없이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부여하였다는 점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인들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가 다시금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보람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림 8> 고우 슬로우 레스토랑 전시

(4) 도시락(都市樂) 프로젝트

‘도시락’의 ‘도시락(都市樂)’⁹⁾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이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 서비스를 뜻하는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都市)에 희망과 즐거움(樂)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대상들을 디자인으로 감싸 안을 수 있기 를 꿈꾸는 학생들의 희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9> 일반적인 도시락봉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9) 김병수, 류승연, 백혜주, (2011), Debut展,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프로덕트디자인전공 졸업작품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드림’이라는 정신에 기초하며, 여기에 한국의 ‘효(孝)’ 사상을 접목시킴으로써 도시락을 제공받은 독거노인들이 물질적인 끼니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情)’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배달되는 도시락의 경우, 자원봉사자 혹은 집배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계가 불확실하다. 이에 서비스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프로세스를 제안함으로써 따뜻한 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제품 구조를 살펴보면, 도시락 통의 경우 ‘소반’의 정성스러운 이미지를 적용하였으며 양옆에는 도시락을 두 손 모아 공손하게 드릴 수 있는 손잡이를 부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지닐 때 심장과 가까운 곳에 보관하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락을 심장근처에서 꺼낼 수 있는 가방도 함께 디자인하였는데 이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정을 드린다는 기획의도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자들에게 일지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적인 확산을 유도하였다. 봉사자들은 휴대성이 용이한 일지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손쉽게 도시락의 배달현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



<그림 10> 도시락 패키지 및 봉사차량 디자인

(5) 동행(同行) 프로젝트

‘동행(同行) 프로젝트’¹⁰⁾는 달동네의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쉽게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기획된 학생들의 디자인이다.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이다.

학생들이 대상자로 선정한 달동네 고지대는 가파른 계단들이 많이 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평소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관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할머니 : “아이고, 다리야~”(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가 가파른 계단 앞에 서서 당황하고 있음)
- 손녀딸 :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짐을 대신 들고 올라갈게요~”
- 할머니 : “네 덕분에 할머니가 편하게 오를 수 있구나~ 네가 없으면 나는 어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림 11> 배경이 되는 스토리텔링

환경 분석 결과,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혹은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는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난간에 부착 가능한 ‘손잡이 디자인’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손잡이 디자인의 콘셉트는 ‘참새’이다. 일상에서 친숙한 동물인 참새는 스토리텔링 배경 속 이야기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이웃집 소녀처럼 재잘거리는 정겨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손잡이는 난간에 끼우는 형태로 설치되며, 노인들은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쉽게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

다리가 아프신 노인들이 손잡이를 잡아 밀며 오르게 되면, 다리에만 쏠리던 힘이 분산되어 수월히 오를 수 있고, 무거운 짐의 경우 손잡이 안쪽에 걸어서 위쪽으로 밀면서 쉽게 오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단의 난간마다 지름의 차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이즈인 평균 7cm를 고려하여 제작하였으며, 주재료로는 열가소성과 탄성이 있어 난간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폴리스틸렌 수지’를 사용하였다.

10) 김보경, 백은하, (2010), Probono展,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프로덕트디자인전공 졸업작품프로젝트.



product concept : 참새



<그림 12> 제품의 형태 및 사용 장면

난간과 마찰하는 부분인 제품의 아래쪽은 고무바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손잡이가 미끄러질 경우에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할 수 있다. 가령 손잡이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 다리에 힘이 없는 노인들이 손잡이와 함께 밀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며,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다 잠시 쉬기 위해 손잡이를 놓을 경우에는 손잡이가 미끄러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고무바퀴를 배치함으로써 계단의 난간 표면과의 마찰 정도를 크게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였다.

학생들은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노인들의 힘든 걸음에 든든한 동행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의 반복되는 일상에 녹아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통하여 개개인의 삶 속에 존재하는 보통날(ordinary day)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였다.

03 제시된 레퍼런스(reference)의 시사점

위 다섯 가지의 국내·외 레퍼런스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디자이너의 마음자세’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향해야 할 디자인의 방향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디자인’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연구진은 진정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야 하는 것이며,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처럼 거창하거나 외부에 생색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낮은 자세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독거노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보편적 디자인¹¹⁾’을 추구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주어진 문제만을 해결하는 단순하고 소극적인 접근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반영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절대요소는 ‘미(美)’가 아닌 ‘사람(人)’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기 좋다는 것은 디자인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디자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디자이너에 주어진 책임이다.¹²⁾

인본주의적 디자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요구하는 일이다. 장소, 성별, 장애 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지님으로써 우리의 일상과 도시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디자인

11) 북유럽에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미국·대만·일본에서는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영국에서는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이라고 한다. 다양한 사용자를 포함하는 디자인이라는 의미로서 역사적 배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디자인을 통해 소외된 계층을 포용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12) 강미현, www.cckang.kr, 건축사사무소 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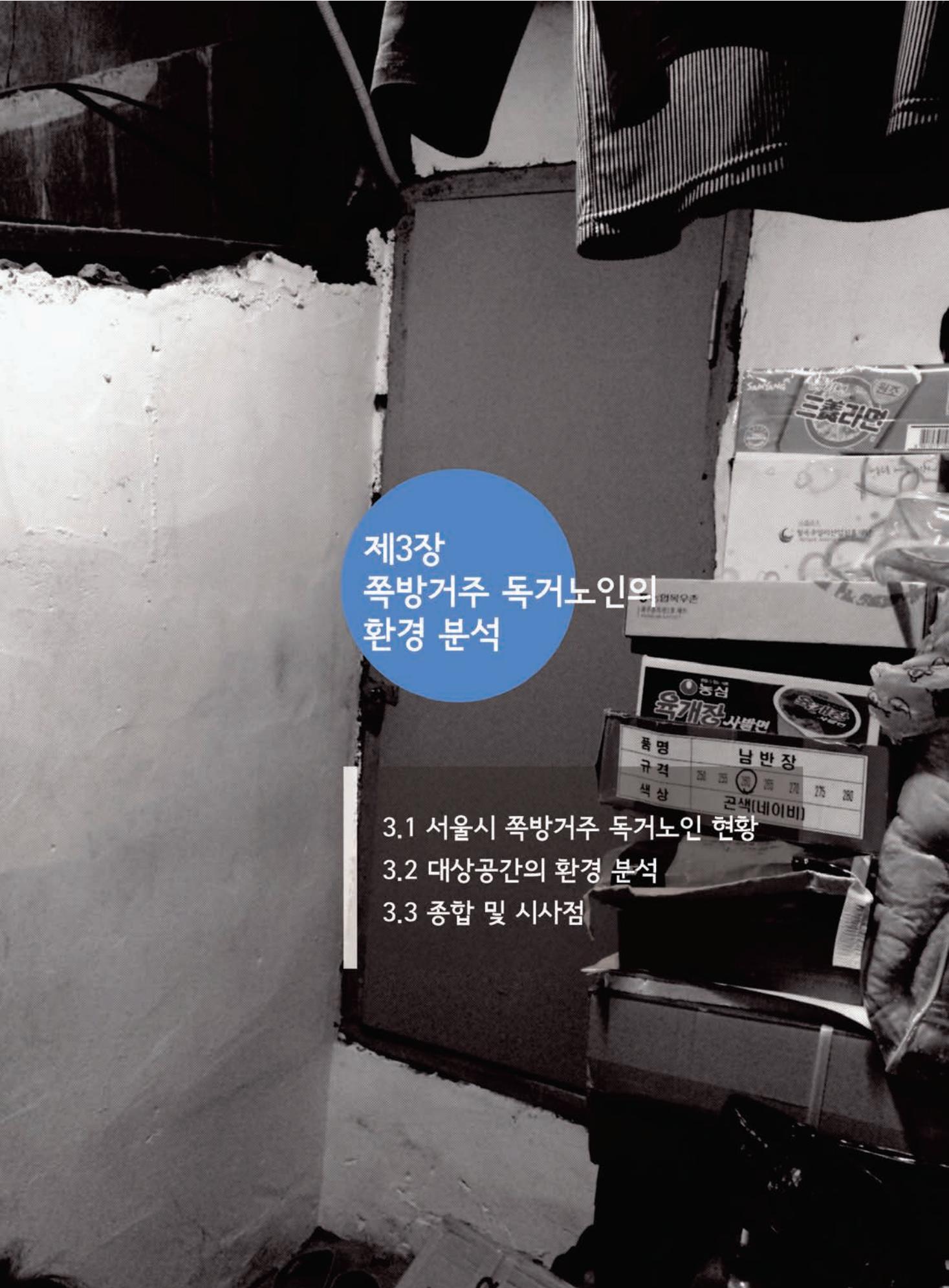
행위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근본정신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성(感性)을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기초단위 생활공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된 감정과 정신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연결고리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보노(probono)’ 개념의 디자인을 제안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아이템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프로보노’란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로는 ‘for the public good’ 즉,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돋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유사한 개념이기도 하다.

프로보노 개념의 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맥락과 자연스럽게 부합될 수 있도록 가벼운 주제와 아이템을 선정하고, 여기에 디자이너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캐주얼(casual)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록 시작은 사소할지라도 따뜻한 디자인들이 모인다면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쪽방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었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모두가 영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따뜻한 감성(感性)과 정(情)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장 쪽방거주 독거노인의 환경 분석

3.1 서울시 쪽방거주 독거노인 현황

3.2 대상공간의 환경 분석

3.3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쪽방거주 독거노인의 환경 분석

3.1 서울시 쪽방거주 독거노인 현황

01 독거노인의 사회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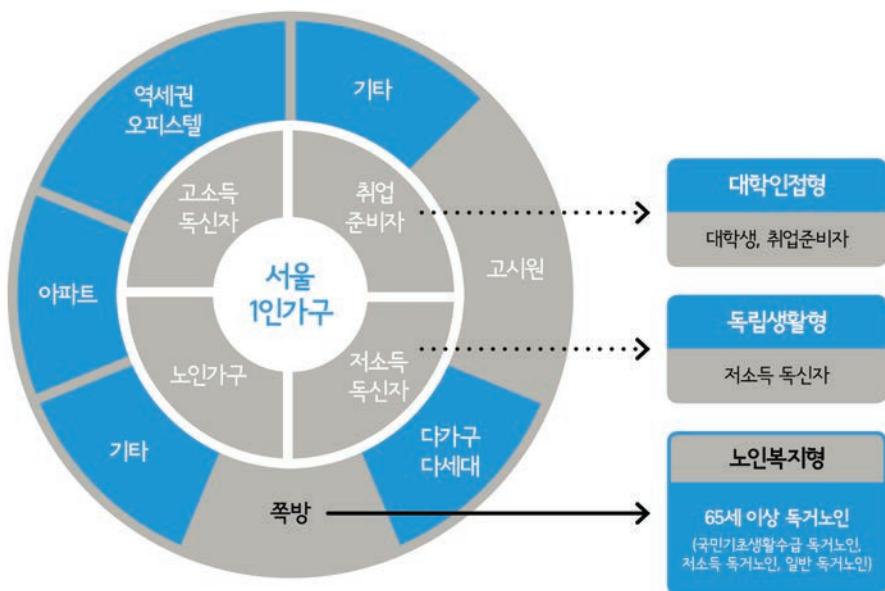
독거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가족, 친구, 이웃 등 관계망이 단절되고 역할상실에 따른 외로움과 고립감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¹³⁾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는 65세 이상의 자¹⁴⁾를 노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 단계이며, 2027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⁵⁾ 우리나라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것을 감안할 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독거노인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싫어하며, 계속해서 경제·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13)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의 정의 및 현황 (<http://1661-2129.or.kr/index.html>)

14) 노인복지법 시행령 [2013.4.23.] 제14조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통계법」에 의해 구분된다.

15) 서울시(2013), 통계자료 <http://opengov.seoul.go.kr/section/217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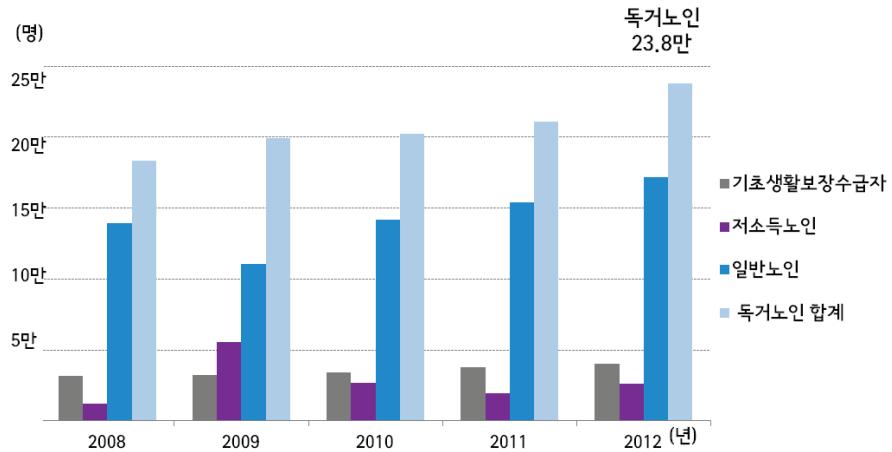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라 독거노인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생활보호대상자, 둘째, 거동이 불편해 거택보호자로 지정된 ‘저소득노인’, 셋째,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노인’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13> 서울시 1인 가구 가구유형별 분류

2012년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는 1,110,995명이며, 독거노인 수는 238,551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수는 2003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독거노인의 3가지 기준에 따라 독거노인을 분류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0,616명, 저소득노인 26,067명과 일반노인은 172,323명으로 나타났다.¹⁶⁾

16) op., cit.



<그림 14> 서울시 독거노인 수(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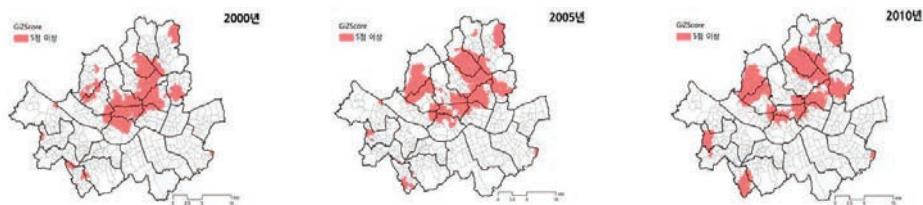
독거노인 가구는 2010년 약 102만 가구, 2020년 약 151만 가구에서, 2035년에는 현재 독거노인의 3배인 약 343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¹⁷⁾이다. 미·이혼 가구의 급증으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가족 간 떨어져 지내는 독거노인의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길어진 노후생활, 소득의 감소, 건강 문제, 가족 구성의 변화, 부양 가치관의 변화 등이 원인이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후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고령자 1인가구의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독거노인들의 소형 임대주택 선호¹⁸⁾ 현상이 심화되어 다가구, 다세대 주택, 쪽방, 고시원 등으로 거주지가 이동하고,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서울시의 저소득층 노인 밀집 지구에 대한 조사 결과 서대문구, 은평구, 강북구, 중랑구로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은평구·서대문구 경계, 용산구·중구 및 종구·종로구, 동대문구로 연결되는 구도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에서 저소득 노인 밀집지구의 공간적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¹⁹⁾ 서울시 통계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3년 기준 노원구(7,145명), 성북구(6,661명), 관악구(5,726명), 동대문구(5,237명) 순으로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년 후 2012년 조사 결과, 서울시 노원구(14,679명), 강서구(13,991명), 구로구(13,246명), 은평구(12,716명), 성북구(12,399명), 중랑구(10,588명), 강북구(10,163명) 순으로 독거노인의 수가 많은 구로 조사되었다.

17) 보건복지부, (2012),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p1, 201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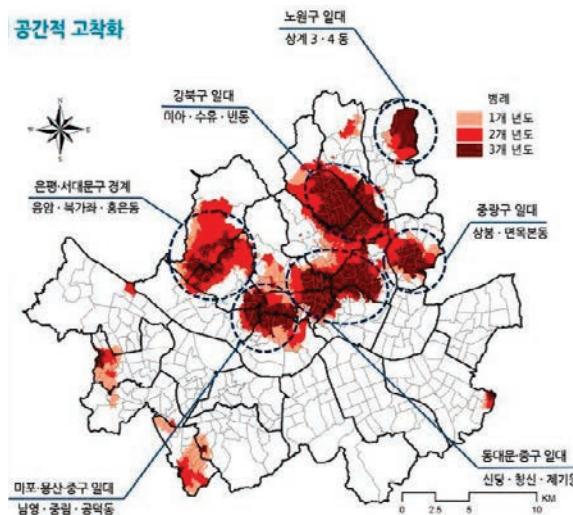
18) 하나금융정보, (2010), '소형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하나금융정보, 제65호, p3~4, 2010.6.9.

19) 이희연 외 2인, (2014),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패턴과 균린환경 특성',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자료집, p70.



<그림 15>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패턴화(2000년, 2005년, 2010년)²⁰⁾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많은 지역은 노원구(3,037명), 강서구(2,764명), 동대문구(2,310명), 저소득 독거노인은 성북구(5,599명), 관악구(4,854명), 도봉구(3,568명), 일반 독거노인이 많은 구는 노원구(10,856명), 강서구(10,642명), 구로구(10,671명), 은평구(9,655명) 순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구, 은평구, 용산구 등의 구도심 지역에 독거노인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역 중 독거노인 비율이 90% 이상인 동대문 일대 종로구 창신 1동 쪽방지역을 집중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관찰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6>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공간적 고착화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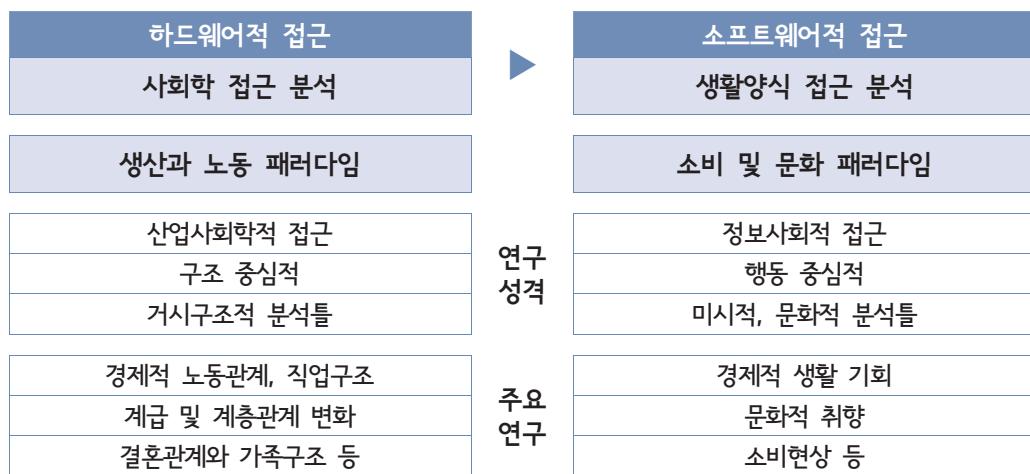
20) Ibid., p70, 재인용.

21) Ibid., 도면 참조.

02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분류 틀

(1)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의 정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분야별 관심 영역에 따라 해석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시대적 패러다임이 탈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면서 생활의 중심도 생산과 노동의 과정에서 소비와 문화의 과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 생산과 소비, 개인과 사회, 구조와 행동 등의 이분법적인 구분과 일면성을 넘어 복합적인 과정들이 개인의 생활과 삶에 작용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연구 패러다임이 미시적인 대상, 소비양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²²⁾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문화, 가치, 자원, 상징(symbol), 인허 제제(sanction) 등의 정형화된 결과로서 구매하는 제품, 사용하는 상징체계, 소비하는 방법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호킨스(D.I. Hawkins)는 “라이프스타일은 생활주기를 통해 형성된 고유한 개인적 특징의 작용으로서 상황(situation), 문화(culture), 사회계층(social class), 준거집단(reference groups), 가족(family), 개성(individual characteristics)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였다.²³⁾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은 특정 개인이나 가족, 특정 계급 또는 집단의 생활양식, 가치관, 태도, 실제적 행동 등이 통합된 체계로서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소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3> 라이프스타일 개념접근의 변화

22) 산업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06), '미래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예측기술에 관한 연구', p10.

23) Hawkins, D.I., Best, R.J. and Coney, K.A., (1983), Consumer Behavior, Texas: Business publication Inc., 제인용.

Engel 외(1990)는 라이프스타일을 사람들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이며 문화, 사회, 준거집단, 가족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습득한 개인의 가치 체계로 정의했다. 사회 전체 또는 일부 계층의 고유하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총체적 생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인 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AIO(activities, interests and opinions) 접근 방법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라이프스타일 측정 방법으로 웰즈(Wells, 1975)와 플러머(Plummer, 1971 ; 1974)에 의해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행동(activities), 관심(interests) 그리고 의견(opinions)의 세 가지 척도에 의해 측정된다. 플러머는 AIO 분석에 대하여 “AIO 분석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동, 관심, 의견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그들의 작업 시간과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 가로 측정되며, 그들의 관심은 당면한 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로 측정되고, 그들의 의견은 사회적 문제와 제도 및 그들 자신에 대한 태도로써 측정된다. 끝으로 나이, 수입, 거주자 등과 같은 기본적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Plummer, 1974).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활동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명확한 행동을, 관심은 어떠한 제품 및 서비스에 갖는 특별한 흥미를 가리키며, 의견은 소비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표 4>는 AIO를 이용한 라이프스타일 측정에 사용되는 각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²⁴⁾

<표 4> AIO (활동-관심-의견)의 분류 내용²⁵⁾

분야	내용	질문 내용
활동 (activity)	취미생활, 사회생활, 쇼핑, 휴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안의 활동 반경, 복도, 화장실, 외출, 계단, 골목, 기타 등 최근 어떤 일이 흥미로우세요? 평소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취미, 일상생활) 집중하여 하는 일 또는 의미에 대한 발견?
관심 (interest)	가족, 직업, 유행, 음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시청, 정보, 식사, 청소, 사람, 기타 등,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취업, 일자리 등) 어떤 것을 사고 싶으신지? (물건, 손자선물, 소비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세요?
의견 (opinion)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간의 대화, 불편, 편의사항, 행사 등 심리적 관계 등

24) 산업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2006), '미래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예측기술에 관한 연구', p12~13.

25) Plummer, J. T., (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Jan.), p34. (AIO)의 행태분석 틀 재구성

(2)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분류

현재 고령화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는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체적으로 편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쪽방 거주 독거노인은 환경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다. 매슬로우(Maslow)는 특별한 순서나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인간 욕구의 다섯 가지 체계를 탐구하였다.²⁶⁾ 매슬로우는 이를 통해 인간 욕구는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위계 상의 다음 단계에 있는 다른 욕구가 나타나서 그 충족을 요구하는 식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요구는 다음 단계에서 달성하려는 욕구보다 강하며, 그 욕구가 만족스럽게 충족되었을 때만 다음 단계의 욕구로 넘어가게 된다.²⁷⁾

인간은 생애 주기에 따라 늙어가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노화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른 생리적 욕구도 다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주거의 개념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노인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신체적·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⁸⁾

<표 5> 노인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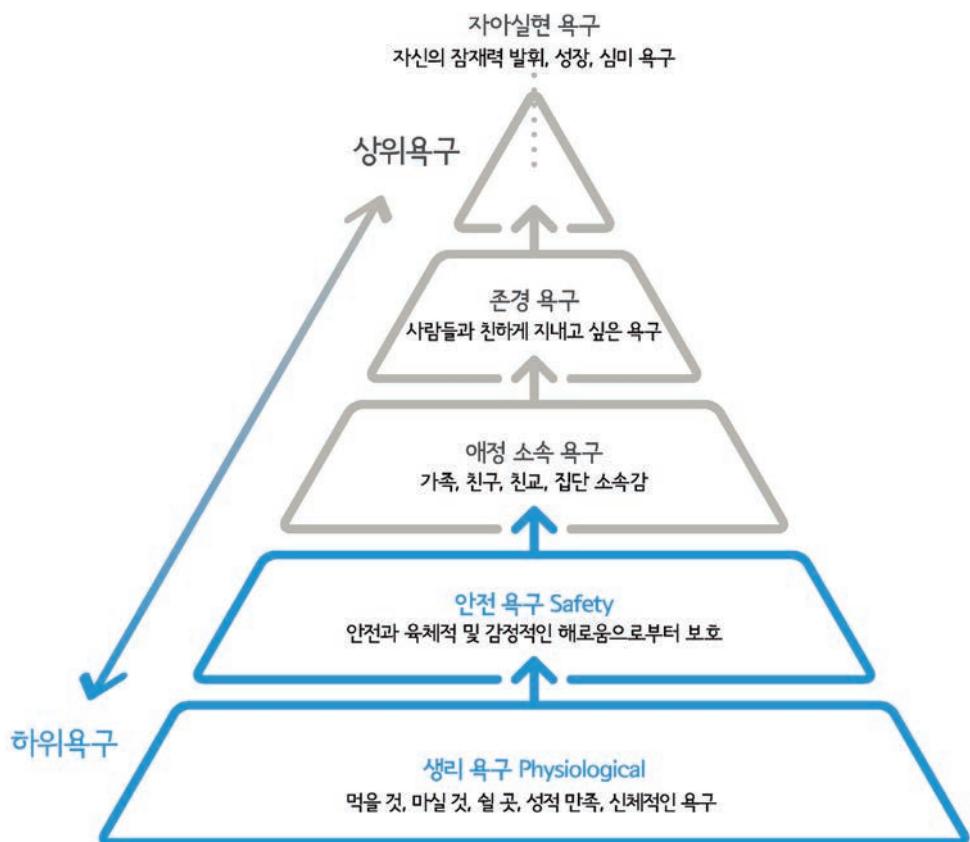
심리적 요인	▶Life Style▶	신체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효능감· 자기만의 시간· 상황의 컨트롤· 상황별 익숙함· 심리적 불안 요소· 지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자립 및 균형· 감각기관의 편안함· 효율적인 행동반경· 적정 체온 및 온도· 활동능력· 물리적 불안 요소· 인지적 부담 요소

26) Abraham H. Maslow,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rev. ed.(New York: Harper & Row,). 재인용

27) 윤정일 외, (2007), 교육행정학원론, p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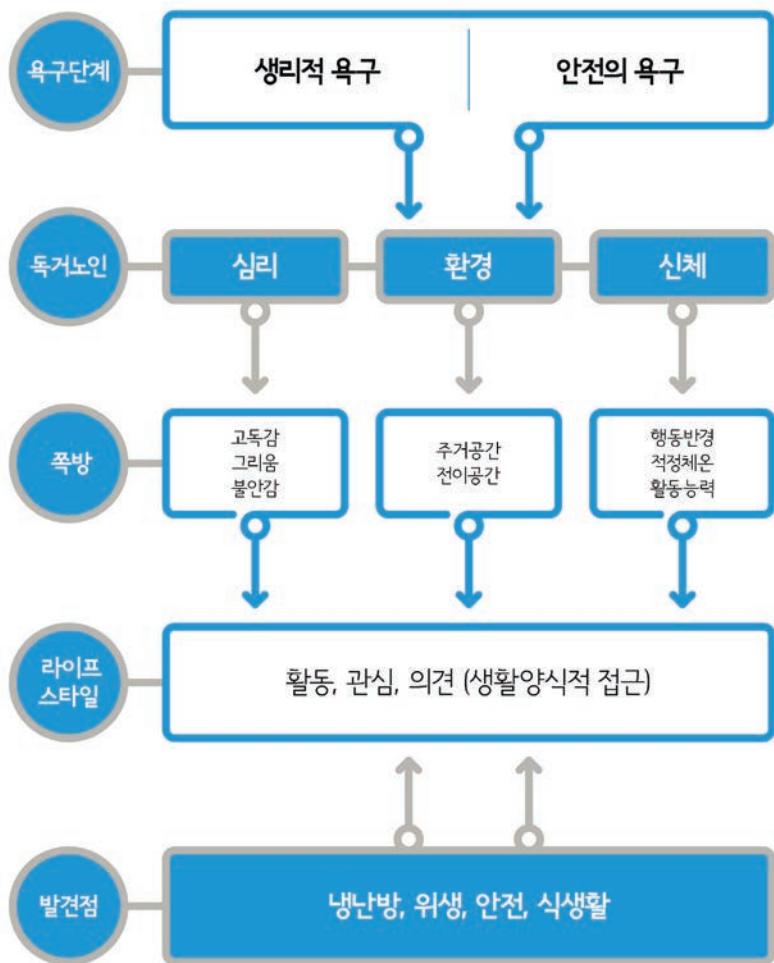
28) 이동민, 김정곤, (2014), '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공간에 대한 UX 디자인 방향 연구', p138.

29) Ibid., p139.



<그림 17> 매슬로우 욕구단계설³⁰⁾

30) 위키백과 매슬로우 욕구단계설, 재구성, <http://ko.wikipedia.org>



<그림 18>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분류 틀

03 쪽방 거주자의 특성 및 유형화 분류

(1) 쪽방 분포 현황 및 주거특성(주거형태, 주택상태, 점유형태, 경제적, 여가 생활적 측면)

쪽방은 정상적인 주거형태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도시 빈곤층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라 할 수 있다. 서울의 쪽방 주민 수는 약 3,200명(3,151명)으로 추정된다. 분포지역은 영등포역과 서울역 인근 및 종로구 돈의동, 창신동 등 기차역 주변과 재래시장의 인력소개소 등과 인접해 있

으며, 도심재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개발예정지역이 대부분으로 개발에 의한 철거 후 기존 쪽방 거주자를 위한 대체 주거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2010년 서울 주택상태조사에 따르면 쪽방 생활자의 90%가 1인 가구로 평균 가구원수는 1.16명에 불과하였다. 연령대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28%, 60대 52%로 80% 이상이 노년층과 장년층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은 장기적 무직이 67.7%, 단순 노무직이 29.3%로 99%가 가구 소득 분위 1·2분위에 속하는 최저소득계층이며 가구별 월 소득 평균은 50.1만 원에 불과했다.

점유형태는 월세 98%, 일세 2%로 자가 소유나 전세에 의한 임차형태는 전무하고, 보증금은 평균 233만 원, 월세는 평균 21.8만 원으로 거주비가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사용면적은 6m²(1.8평) 정도로 최저주거면적(14m²)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었고, 정상적인 거처라고 할 수 없는 낙후한 시설에 화장실, 부엌 등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³¹⁾도 있어 쪽방 거주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쪽방 생활자들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대부분 생계형 거주자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부족하고 사회적 참여가 어려워 이에 따른 개인적인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노인이라면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2011년도 노인 실태조사에서 가구의 소득은 독거가구가 연 841만 원, 노인부부가구 1,798만 원, 자녀 동거가구 3,763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중 주거 관련비(월세, 냉난방비 등)가 43.0%로 가계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보건의료비 24.7%, 식비 12.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적 노년 준비(노후 자금, 건강 유지를 위한 규칙적 운동 등)에 비해 사회적 노년 준비(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사회관계 활성화 등)는 소극적이거나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요통·좌골통 등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흡연율과 연간 음주율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운동 실천력이 부족하여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독거노인은 우울 증상을 보이는 편이 높은데, 여성, 고 연령, 저 소득자일수록 우울증상은 높게 나타났다. 동자동 쪽방 주민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들의 구강 건강, 정신보건, 영양 상태, 음주와 흡연 등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것으로 조사³³⁾되었다. 또한 동네 자원 및 나쁜 환경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자본, 공중보건 복지적 차원에서의 건강권³⁴⁾ 실태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은 독거노인의 99.0%가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이외의 여가활동에는 화투, 카드가 가장 많고, 등산, 화초 가꾸기, 책 읽기, 노래교실, 바둑·장기·체스, 산책 순으로 나타났다. 친목단체 활동율은 37.4%이지만 동호회 활동(3.8%) 정치사회단체(0.7%)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31) 이동훈, 서울시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vol.28 .n12, p17~18.

32) 보건복지부, (2012), '65세 이상 10명 중 8명, 70세는 넘어야 노인', 보도자료, p4~5, 2012.6.22.

33) 국가인권위원회, (2012), '동자동 쪽방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p64.

34) Ibid., p20, 제인용.

본인의 노후 향유 방법으로는 건강 유지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19.6%), 편안하게 쉬면서 보내고 싶다(14.6%),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내고 싶다(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³⁵⁾ 이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문화 활동과 관련한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쪽방은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과 함께 비주택이라는 표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시는 비주택의 주거환경과 거주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거주환경의 주거 안전기준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쪽방은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거주자들은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⁶⁾

국토해양부에서는 4인 가족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7㎡ 넓이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최저주거기준³⁷⁾으로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이나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 부엌 및 화장실 등 필수설비 기준, 주택의 구조 및 성능,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2010년 16.2%로 나타났다.

(2) 쪽방촌 독거노인 라이프스타일(life style) 유형화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연구소에서 미첼에 의해 개발된 VALS(value and life style) 프로파일은 미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소비자를 ‘필요충동적 소비자’(생리 및 안전의 욕구를 추구), ‘외부지향적 소비자’(소속과 존경의 욕구를 추구), ‘내부지향적 소비자’(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로 구분하고 있다.³⁸⁾ 1차적 VALS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과 유사하게 분류되었다. 그러나 노년기 사회참여 활동은 타인과 정서적 교제를 통해 혹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거나 지지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노년기 사회참여 활동 효과로는 개인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Mitchell(1983)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행동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쪽방 거주 독거노인을 필요충동적 소비자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5개의 카테고리인 생계검약형, 생계유지형, 생계충동형, 생계의존형, 생계불안형으로 분류하였다.

35) 보건복지부, (2012), ‘65세 이상 10명 중 8명, 70세는 넘어야 노인’, 보도자료, p6, 2012.6.22.

36) 서울특별시, (2013),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p3.

37)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38) 홍성태, (1999), ‘보이지 않는 뿌리’, p211~213.

<표 6>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행동특징³⁹⁾

	소비자 형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특징	인구 통계적 특징	구매형태의 특징
필 요 총 동 적 소 비 자	생존형 (4%) surviv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을 위해 투쟁 · 의심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빈자 · 학력이 아주 낮음 · 도심 빈민가에 거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의 지배를 받음 · 기본 생필품에 초점을 맞춤 · 즉흥적인 필요 때문에 구매함
	유지형 (7%) sustai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과 보호에 대해 걱정함 · 불안하되며 총동적이고 의존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이 적음 · 학력이 낮음 · 실업률이 높음 · 도심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거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결정이 가격에 좌우됨 · 구매를 머뭇거림 · 소량구매, 비계획 구매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기도 함

<표 7> 쪽방촌 독거노인 라이프스타일 유형분류

군집유형		군집특성
유지형 (sustainers) ↑	생계 검약형	<p>(생활) 건강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식습관과 건강유지, 근검 절약적인 삶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려는 생활 방식</p> <p>(경제) 현재의 월세에서 보증금이 있는 방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며 거주의 의미로서 방을 생각하는 경향</p> <p>(성격) 외부에서의 활동과 집안에서의 식사 및 TV 시청, 긍정적</p>
	생계 유지형	<p>(생활)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수입이 여의치 않아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힘듦</p> <p>(건강)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며 생활, 몸은 아프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더욱더 악화되지 않고 유지하는 경향</p> <p>(성격) 필요한 물건(전자제품, 가구)은 주변에서 받기로 하며 구입은 하지 않는 경향,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p>

39) Ibid., p211.

Michell, A., (1983), *nine american lifestyle : who we are and where we are going*, New York, NY: MacMillan Publishing Co., 제인용

<p style="text-align: center;">↓</p> <p>생존형 (survivors)</p>	<p>생계 충동형</p>	<p>(성격) 대인관계에 있어 적극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하며, 쉽게 화를 잘 내는 성격, 도박이나 주변의 자극적인 성향에 잘 유혹되는 경향</p> <p>(건강) 음주와 흡연을 자주하여 건강에 적신호가 있음에도 충동적인 성향</p> <p>(생활) 집안의 가구가 많으며 정리하지 못하는 스타일</p>
	<p>생계 의존형</p>	<p>(생활)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특별한 일 없이 주변을 방황하며 시간을 보냄, 쪽방상담소에서 지원해 주는 음식과 이불 등을 받으며 생활하는 경향</p> <p>(성격) 스스로 일을 찾아서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성향, 소심한 성격이며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성격</p>
	<p>생계 불안형</p>	<p>(성격) 대체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찾지 못해 불안, 초초, 낙오되는 성향, 자신의 역할 상실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향</p> <p>(생활) 집안에 가구와 살림살이가 많지 않으나, 정리 및 청소를 하지 않음</p>

3.2 대상공간의 환경 분석

01 공간 탐방에 의한 관찰 및 조사

(1) 공간의 범위 설정 과정

집중 연구 대상 지역인 종로구 창신 1동 동대문쪽방상담소 주변으로 쪽방 밀집 지역의 거주민 대상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주민의 주거 환경적 측면에서 심리적·신체적 요인을 고려하여 쪽방 거주 독거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였다. 이는 거주자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핵심 디자인 요소와 전략을 도출하여, 서울시 쪽방 거주자의 지역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함을 목표로 삼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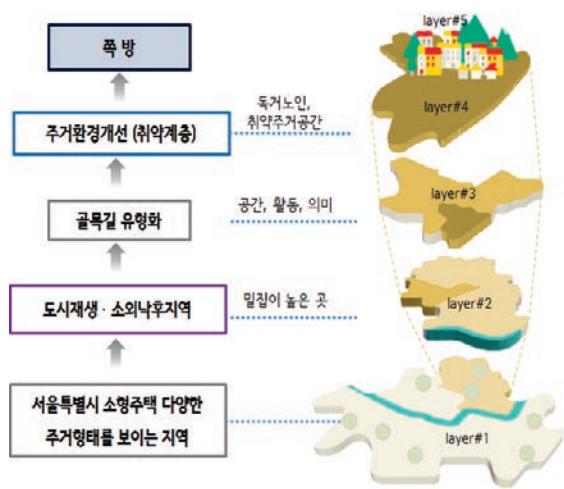
<그림 19> 종로구 창신 1동 쪽방밀집지역

- 조사목적 : 독거노인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사용자 니즈(needs) 파악
 실행 가능 디자인 전략 마련
- 조사방법 : 쪽방 거주자의 공간 탐방 및 인터뷰 실시
- 조사내용 : 쪽방 거주자의 주거공간의 불편사항
 삶의 가치적 측면에서의 주거
- 기 간 : 2014. 10. 10 ~ 12. 10 (2달간)
- 조사방법 : 학술논문 조사, 기존 통계 조사를 포함하여 창신동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 및 골목
 과 주거지역의 환경과 쪽방 내부 공간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 현장 방문 실행 총 4회와 노인복지센터 방문 : 실측조사, 사진 촬영, 인터뷰 실시
 - 1차 실행 : 창신 1, 2동 쪽방밀집 인근 지역 탐방 (2014. 10. 11)
 - 2차 실행 : 창신동 쪽방상담소 및 쪽방밀집지역 현장 방문 (2014. 10. 29)
 - 3차 실행 : 창신동 쪽방밀집지역 현장 방문 및 거주자 인터뷰 (2014. 11. 6)
 - 4차 실행 : 창신동 쪽방밀집지역 현장 방문 (2014. 11. 20)
 - 5차 실행 : 종로구 노인복지센터 방문 (2014. 12. 10)

2012년 「서울골목디자인 연구·조사」에서는 골목 관련 특징과 유형 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틀에 따르면, 공간, 활동, 의미의 3가지 분류를 통해 서울시내의 골목의 유형을 도시조직, 건축물, 주변 자원, 용도, 거주민, 방문객, 역사 문화, 사회적 현안으로 나누고 있다. 이번 연구 대상인 창신 1동의 골목과 주거지역의 연계성은 자연발생적도시조직형, 특정건물군집형, 특정계층집단거주형, 거주민이슈형으로 볼 수 있다.

<표 8> 골목의 유형화⁴⁰⁾

분류		특징	유형화
공간	도시 조직	역사적도시조직형	
		자연발생적도시조직형	
	건축물	특정건물군집형	
활동		적정규모구성형	
		생활유산형	
	주변자원	주변지원연계형	
의미	용도	상업활동집중형	
		산업생태계형	
	거주민	특정계층집단거주형	
의미	방문객	특정목적방문형	
	역사·문화	역사적의미형	
		대중적이미지형	
사회적	사회적	개발관련이슈형	
	현안	거주민이슈형	



<그림 20> 서울시 대상지 선정

창신동은 동대문역(교통)과 동대문시장(상권)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었다. 창신동 쪽방지역은 1945년부터 1982년까지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지방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던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행금지가 있어서서 지방에서 올라온 상인들은 쌈 여인숙을 찾아 이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고, 당시 여관과 여인숙은 호황을 누렸다.⁴¹⁾ 그러나 1977년 동대문 버스터미널이 없어지고, 1982년 통행금지가 사라지면서 여관과 여인숙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여관·여인숙은 무보증월세, 일세를 받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쪽방으로 전환되었다. 한 층에 한 개 정도 있는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되었다. 방에는 물도 나오지 않아 주거지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열악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을 가진 숙박시설을 개·보수하지 않으면서 보증금 없이 값싼 월세(17~22만 원), 일세를 받으며 임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노점상인 등이 유입되면서 현재까지 빈곤층의 주거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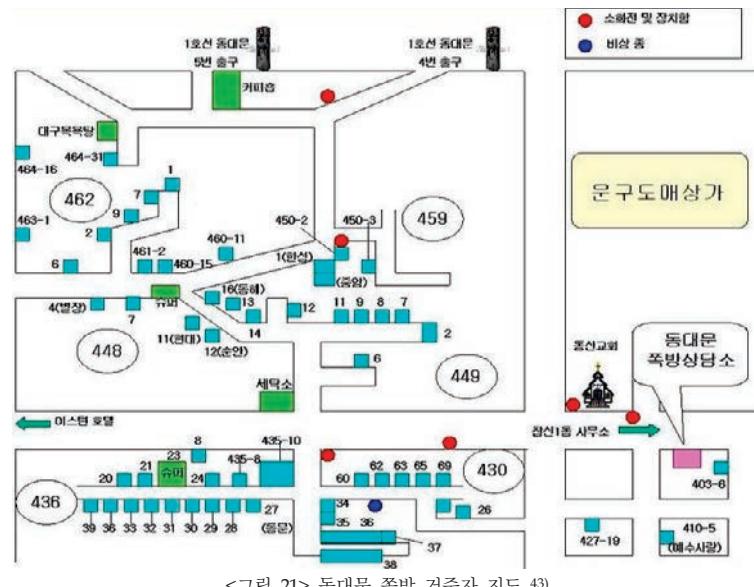
2013년 서울시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 창신동 쪽방 지역 거주자 321명 중 수급자는 123명, 차상위는 10명으로 대부분의 쪽방 거주자는 경제적 빈곤 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일정 금액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약 40만 원 정도이나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 17~22만 원의 월세를 내고 나면 보조금만으로 생

40) 서울디자인재단, (2012), 서울골목디자인 연구조사, p77, 재구성

41) 서울역사박물관, (2011), '공간과 일상 창신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p209.

활을 하기 힘들다.

쪽방 노인들 중 일부는 폐품을 수거해 팔아 생계에 보태고 있다. 주변의 상가에서 발생하는 폐품의 양이 많은 편이지만 폐품을 수거하는 쪽방 주민들이 많아서 폐품 수거를 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 노동 능력이 있는 쪽방 주민들은 공공 근로, 일용직(건축업, 식당일)으로 일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종종 복지기관, 종교기관을 통해 후원금·품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도움이 아니므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⁴²⁾ 동대문역 4, 5번 출구 뒤편 문구 완구 도매상가와 신발상가 사이에 노후한 건물에는 쪽방들이 밀집되어 쪽방촌을 이루고 있다. 창신동에서는 1인당 1평 이하의 무보증 월세, 일세의 저렴한 주거공간을 쪽방이라고 말한다. 현재 57개동, 532개의 쪽방이 있으며, 331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림 21> 동대문 쪽방 거주자 지도 ⁴³⁾

<표 9> 동대문 창신동 쪽방현황⁴⁴⁾

쪽방 건물 (동)	쪽방 수 (개)	쪽방거주자(명)			주 민 등록자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 홀몸노인	장애인
		계	일 시 이용자	상 시 이용자				
55	518	321	36	285	240	123	99	52

42) op. cit., p210.

43) 서울시, (2013),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현황 자료.

44) Ibid., p210.

(2) 공간의 관찰 및 조사

종로구 창신 1동 주변지역의 주변 환경 및 쪽방밀집 지역의 공간 관찰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골목의 주변환경, 건물실내(전이공간), 쪽방실내(내부공간) 3가지로 나누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독거노인의 세간 물품을 조사하며, 이에 따른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가) 골목의 주변환경

남쪽과 동쪽은 청계천과 동대문신발도매상가, 동대문 문구완구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흥인지문이 있고 시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변은 여관과 여인숙, 고시원이 많으며, 신발도매상가로 인해 건물의 1층은 작은 공장과 창고로 사용된다.

■ 골목

○ 비위생적인 외부환경

- 이면 도로에서 골목길로 접어드는 곳에 주거지에서 내어 놓은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음.
- 비좁게 들어선 어둡고 노후화된 골목길, 악취가 심함.

○ 외부환경 커뮤니티

- 주거지 사이에 있는 골목길은 각종 생활 가재도구들이 놓여 있으며 거주자 간의 커뮤니티 공간 활용도가 큼.



<그림 22> 동대문쪽방밀집지역 환경

■ 공공공간

○ 쪽방 거주자를 위한 게시판

- 쪽방 거주자를 위한 공공공간의 편의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발견, 서비스 시설 필요.

○ 정보공유

- 쪽방상담센터에서 제공되는 각종 편의시설, 제공되는 물품.

○ 건조시설

- 공공공간과 주거공간 간의 인접한 지역에 설치된 빨래 건조줄은 좁은 실내·외 공간에 필요.

(나) 건물실내 현황



<그림 23> 건물실내 현황

<표 10> 건물 내부 공간구분

대분류		공간구분		현황의 세부내용
건 물	건물실내 (전이공간)	가	계단	높낮이, 위험도, 채광
		나	복도	채광, 환기문제
		다	화장실	어둡고, 위생, 쾌적성
		라	수도시설	세면, 욕실, 주방 등 공동사용
		마	기타	복도 내벽, 가재도구 등의 위생
		바	방화	화재, 소화기, 대피시설
		사	조도	건물 내 어두워 사물 식별 불가
		아	세탁	채광, 통풍, 건조
	쪽방실내 (내부공간)	자	생활가전	대·중 대형, 중형 가전제품
		차	냉·난방시설	냉·난방시설, 단열 등의 편의
		카	의류	4계절 의류를 보관
		타	침구류	4계절 침구를 보관
		파	식기류	공동취사, 조리문제, 식기류 보관

쪽방 건물 내부를 크게 건물실내와 쪽방실내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쪽방 거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건물실내는 실내에 있는 공공공간으로서의 식생활을 위한 생활보조공간이다. 공간의 구분은 계단, 복도, 화장실, 수도시설, 방화, 조도, 세탁 등으로 공간별로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정리하였다. 쪽방실내는 거주자 개개인의 방으로 주 생활공간이다. 쪽방실내에서는 생활가전, 의류, 침구류, 식기류, 냉난방시설 등으로 나누어 실내 환경을 조사해 보았다.

가. 계단

-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비좁음. 경사가 심해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오는 것이 불편함.
- 계단의 주재료는 나무이고, 각종 전기시설이 주변에 뒤엉켜 있어 화재에 취약함.

나. 복도

- 어둡고 침침한 복도에서 방문과 방 문턱 등의 사물을 식별하기가 어려움. 복도 끝에 환기 시설이 없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하고 더우며 답답함.
-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저녁이면 노인들이 움직이기에는 더욱 불편함.

다. 화장실

- 공용화장실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음. 화장실 주변에는 세면도구들이 널려 있어 위생상태가 불량.

라. 수도시설(세면, 욕실, 주방)

-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샤워보다는 세안이 이루어짐. 날씨가 추워지면, 순간온수를 이용하여 몸을 씻기도 함.
- 몸을 씻는 곳과 식기를 씻는 곳이 구별되지 않아 위생상 문제가 있음.

마. 기타(복도별, 가재도구들)

- 공간 내에는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세대별로 복도에 세탁물을 넣어

서 건조함.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 세탁물 건조가 어렵음.

- 집안에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둘 곳이 없어 방치된 가재도구들이 복도에 널려있고, 빨래걸이 등 정리되지 않아 지저분함.

바. 방화

○ 소방 · 안전시설

-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피난로에 대한 정보 제시를 통해 안전에 대비함. 지난해 쪽방상담소에서 일괄적으로 피난로, 소화기 등을 배치.

사. 조도 (조명시설)

- 건물에 전체적으로 햅볕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움.

아, 세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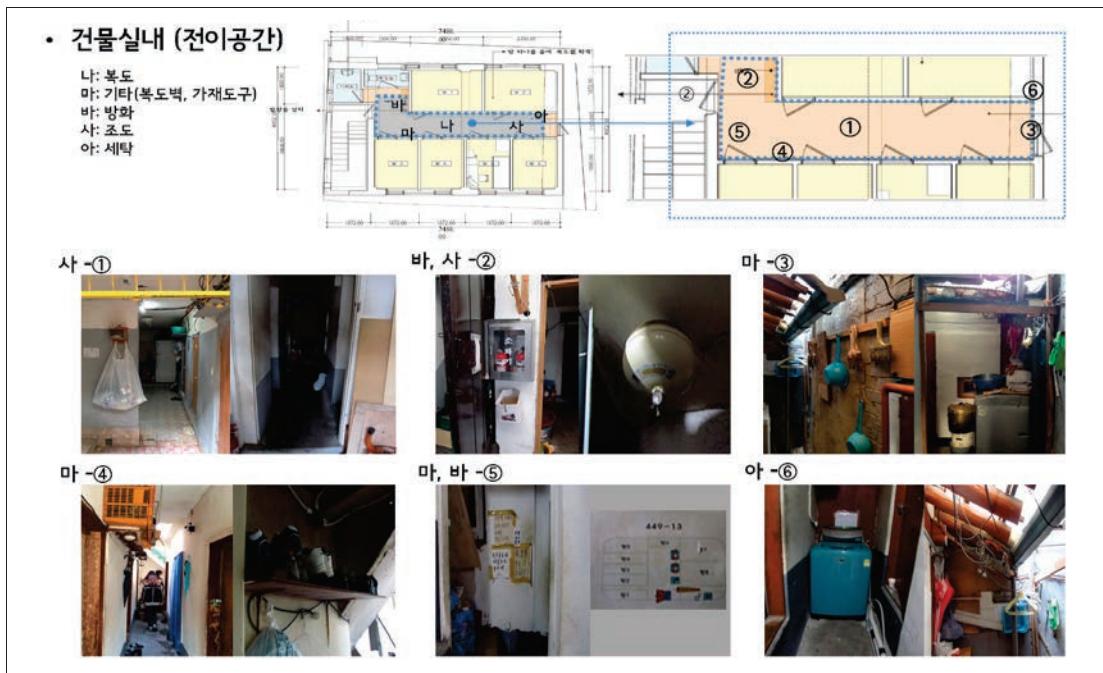
- 공용으로 사용하는 세탁시설은 건물에 따라서 다르며, 보통 큰 빨래는 쪽방상담소를 이용하고, 소량의 세탁물 손빨래를 함.
 - 세탁시설은 세대별로 사용하는데 전기와 수도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을 꺼림.



<그림 24> 건물실내 (전이공간)



<그림 25> 건물실내(전이공간)



<그림 26> 건물실내(전이공간)

(다) 쪽방실내(내부공간)

자. 생활가전

- 쪽방 거주민 대부분은 각 방마다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음.
-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과 주방도구 등 살림살이들이 좁은 공간에 어지럽게 가득 채워져 있음.

차. 냉·난방시설

- 보일러보다는 전기장판을 바닥에 깔아 생활하고 있으며, 옷과 이불을 덮고 생활함. 내부 온도가 여름철에는 높고, 겨울철에는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카. 의류

- 4계절 옷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옷을 보관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쌓아두고 있음. 옷걸이 등이 부족하여, 옷 정리가 제대로 안됨. 보관이 불편해 옷과 옷 사이 구김이 많음.

타. 침구류

- 겨울철 이불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쪽방상담소에서 매년 지급함. 그럼에도 좁은 공간에 침구류 정리가 어려움.

파. 식기류

- 작은 숟가락, 젓가락, 공기, 버너, 등의 각종 식기류가 침구와 의류들과 같이 뒤섞여 있음. 전풍기 등 계절용 가재도구가 따로 보관되지 않고 방에 나와 있음. 작은 소지품 및 집기류, 전선 등이 나와 있어 너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음.



<그림 27> 쪽방실내(내부공간)

<표 11> 쪽방촌 건물 내부(전이공간, 쪽방실내) 분류

분류		소분류	문제점	해결과제	해결범위선정	
조리 세척	사용 영역	주방, 싱크대, 식탁	좁은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	간편, 실용, 환경, 보관용이	수납기능 (제품)	
	해당 기기	전기레인지, 커피포트, 전기밥솥, 식기건조기, 음식물처리기				
보관 제품	사용 영역	선반, TV선반	보관이 용이하지 않음 (음식이 상하거나 변질 우려)	환기, 수납보관 기능	식생활 수납기능 (제품)	
	해당 기기	냉장고, TV	부피가 크며, 무게가 나감	신선도, 계절별 우선순위 보관		
		옷, 의류, 이불	계절별 부피가 다름			
신체 (목욕, 세면)	사용 영역	공용화장실	세탁물(소·중대)과 설거지 등의 건조기능 및 공간 필요	사용자 편의성, 제기능 역할 필요	수납기능 편의기능 (위치, 설치) 위생	
	해당 기기	칫솔, 세수대야, 수도꼭지, 거울				
생활 (청소, 세탁)	사용 영역	화장실, 공용공간, 계단, 외부공간		쾌적한 공간 필요		
	해당 기기	청소기, 다리미, 제습기, 건조기, 신발장				
냉·난방	사용 영역	방안, 외부(실외공간)	더위와 추위로부터의 보호 기능 필요	방한 기능 필요	방풍기능 (보온, 통풍) 편의 시설	
	해당 기기	선풍기, 전기장판, 온풍기, 스토브, 보일러시설(연탄, 기름)				
조명	사용 영역	방안, 복도	전기세 부과로 공공공간(복도, 계단)의 어두움	채광, 안전, 어두운 복도	주기능 (전기, 태양열)	
	해당 기기	형광등, 백열등, 조명				

※ 라이프스타일 생활필수행동(영역1) 참고

내부공간에서의 생활은 의식주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물건은 보관이 용의하고 간편해야 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거주공간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의 최저주거기준(2011)에 따르면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은 한가구당(1인 가구) 최소 1개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며, 총 주거 면적이 14m²(4.5평)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쪽방 평균 크기는 1.06평이며 취사 생활을 겸하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에 부적합하다.

전반적인 쪽방촌은 기본적으로 넓이가 1평(3.3m²) ~ 3평(9.9m²) 정도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 세부적으로 주거안전기준 주요내용은 <표 12>과 같다.

<표 12> 주거안전기준 주요내용⁴⁵⁾

구분	주거안전기준 주요내용
실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1인이 생활하는 방 하나의 최소면적은 6m² - 방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소면적 등의 조건은 따로 정해야 함
공용 화장실 및 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명 당 샤워시설이나 욕조, 변기, 세면대가 갖추어진 욕실 1개 이상 - 샤워실이나 욕실과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경우 8명 당 각각의 시설 1개 이상
공용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취사를 하거나 숙박업소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엌이 없는 여러 가구가 이용하는 주거시설은 기준 면적 이상의 공용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함 - 6명까지는 4m², 12명까지는 6m², 이후 6명 당 2m²씩 증가함 - 식당이나 휴게공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부엌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음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안전시설은 고시원보다 약하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효과적인 대안 고려 -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나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둘 것
위생,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 채광, 난방, 단열 등은 건축법 등의 기준 따름 - 이동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은 취약집단을 위한 거처

45) 국토해양부, (2011),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 2011-490호.

02 쪽방 거주 독거노인 인터뷰

쪽방 거주 독거노인 인터뷰 통해 독거노인의 하루 일과와 성향에 대해 관찰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독거노인을 내용별, 주제별, 관심분야별로 분류하였다. 독거노인의 활동, 관심, 의견도 독거노인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표 13> 활동-관심-의견 분류⁴⁶⁾

분야	내용	주거지(쪽방)
활동 (activity)	취미생활, 사회생활, 쇼핑, 휴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안의 활동 반경, 복도, 화장실, 외출, 계단, 골목, 기타 등 최근 어떤 일이 흥미로우세요? 평소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취미, 일상생활) 집중하여하는 일 또는 의미에 대한 발견?
관심 (interest)	가족, 직업, 유행, 음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정보, 식사, 청소, 사람, 기타 등,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취업, 일자리) 어떤 것을 사고 싶으신지? (물건, 손자 선물, 소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세요?
의견 (opinion)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간의 대화, 불편, 편의사항, 행사 등, 심리적 관계 등



<그림 28> 심층인터뷰 실시

[1차 심층 인터뷰]

- 장소 : 창신동 쪽방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1동
- 목적 : 독거노인들의 거주현황에 대한 현장답사 실시, 불편한 점에 대해 독거노인들 의견 청취

[2차 심층 인터뷰]

- 장소 : 서울노인복지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 목적 : 독거노인 생활방식에 대한 사용자의 문제점 발견과 그들의 인식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

46) Plummer, J. T., (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Jan.), p34, (AIO)의 행태분석 틀 참조

(1) 생계검약형



<그림 29> 생계검약형 인터뷰 내용

-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식습관과 건강 유지, 근검절약하는 삶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려는 생활 방식.
- 현재의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방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며 거주의 의미로서 방을 생각하는 경향. 계획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 외부에서의 활동과 집안에서의 식사 및 TV 시청 등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
- 수납 : 주변 환경에 대한 정리가 깔끔하며, 필요한 부분만 소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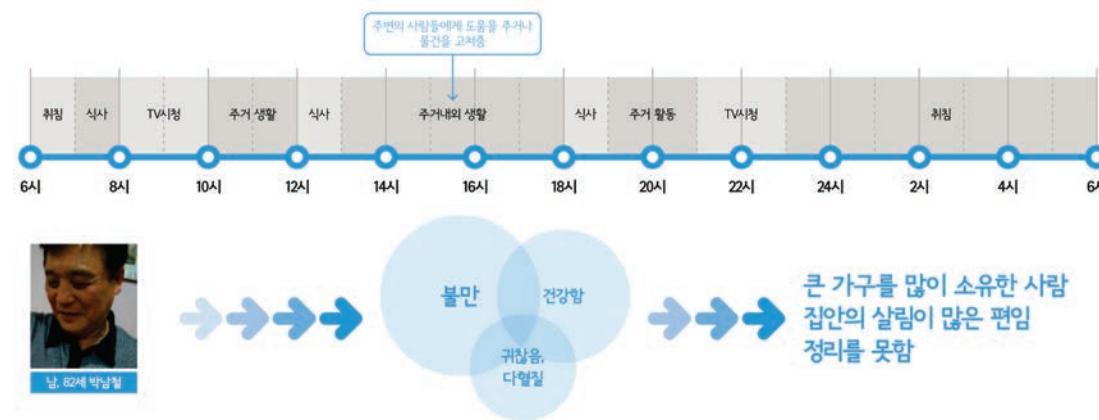
(2) 생계유지형



<그림 30> 생계유지형 인터뷰 내용

-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수입이 여의치 않아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힘듦, 몸은 아프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더욱더 악화되지 않고 유지하는 경향,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며 생활함.
- 필요한 물건(전자제품, 가구)은 주변에서 반기도 하며 구입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현실에 안주하며 계속 반복되는 삶에 힘겨워함.
- 수납 :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어 사용함.

(3) 생계충동형



<그림 31> 생계충동형 인터뷰 내용

- 대인관계에 있어 적극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함.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며 도박이나 주변의 자극적인 성향에 잘 유혹되는 경향이 있음. 과거에 대한 자신감.
- 음주와 흡연을 자주 하여 건강에 적신호가 있음에도 충동적인 성향을 보임.
- 수납 : 큰 가구를 소유한 사람으로 집안 살림이 많아 정리가 어려움.

(4) 생계의존형

-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특별한 일없이 주변을 방황하며 시간을 보냄. 쪽방 상담소에서 지원해 주는 음식과 이불 등을 받으며 생활. 가족들이 살아 있어 용돈을 받아서 살아감.
-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성향이 강함.
- 소심하여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성격.
- 수납 : 한번 정리한 물품은 다시 꺼내거나 사용하지 않음. 버리지 않고 쌓아둠



<그림 32> 생계의존형 인터뷰 내용

(5) 생계불안형

- 대체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찾지 못해 불안, 초조, 낙오되는 경향이 있음. 역할 상실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지 못함.
- 식사는 주로 밖에서 무료급식소 이용. 정부 보조금으로 술과 음식을 사 먹음.
-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성향.
- 수납 : 집안 가구와 살림살이가 많지 않으며 옷, 이불 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음. 정리 및 청소를 하지 않음.



<그림 33> 생계불안형 인터뷰 내용

3.3 종합 및 시사점

01 사용자 니즈(needs)의 파악

쪽방 거주 독거노인들이 처해 있는 삶의 본질, 즉 리얼리티(reality)를 직접 확인한 결과, 독거노인의 삶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끼게 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디자인 마인드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본 프로젝트가 디자이너의 재능을 자랑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됨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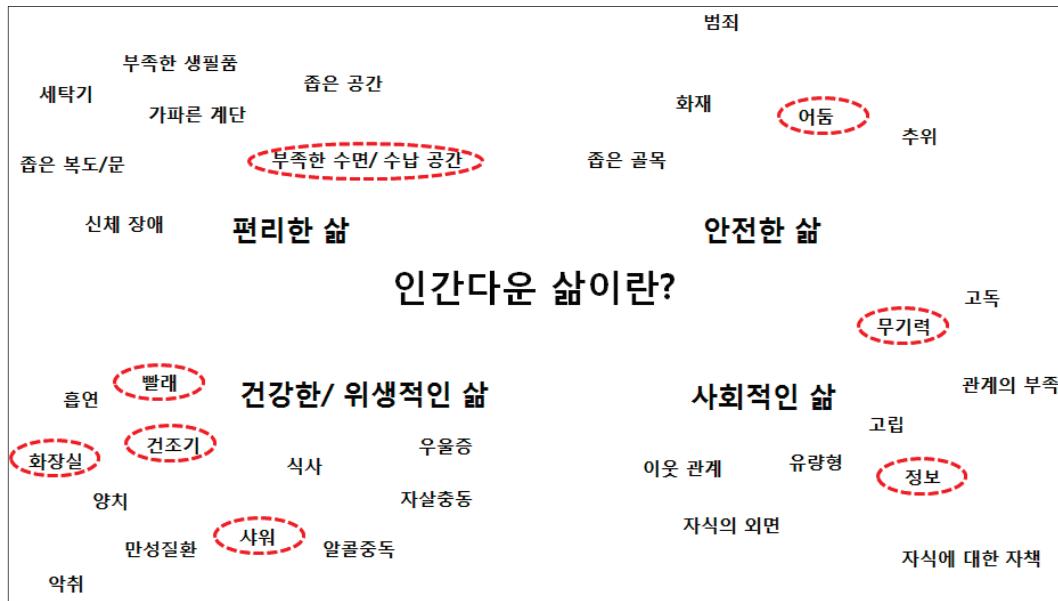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로 독거노인의 입장과 이해하고 최소한의 존엄을 배려함으로써, 쪽방거주 독거노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치유(healing)의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쪽방’이나 ‘기초단위 생활공간 거주자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접근은 오히려 그들의 정서에 해가 되는 발상이 될 수 있다. 연구 대상인 독거노인을 저급한 부류로 취급하거나 무시하고 적당한 선에서 디자인을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초기 접근은 인간 중심의 디자인을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되는 개념인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에 기초하였다.

먼저,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인드 맵(mind mapping)을 진행해보았다. 인간다운 삶을 편리한 삶, 안전한 삶,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 사회적인 삶 등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으며, 대상 환경의 관찰 및 리서치를 통해 각 인되었던 키워드들을 각각의 카테고리 별로 관련지어 연상하였다. 연상된 키워드들로부터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최적의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여기서 최적이라는 의미는 그들의 정서와 생활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머스트 해브(must have)’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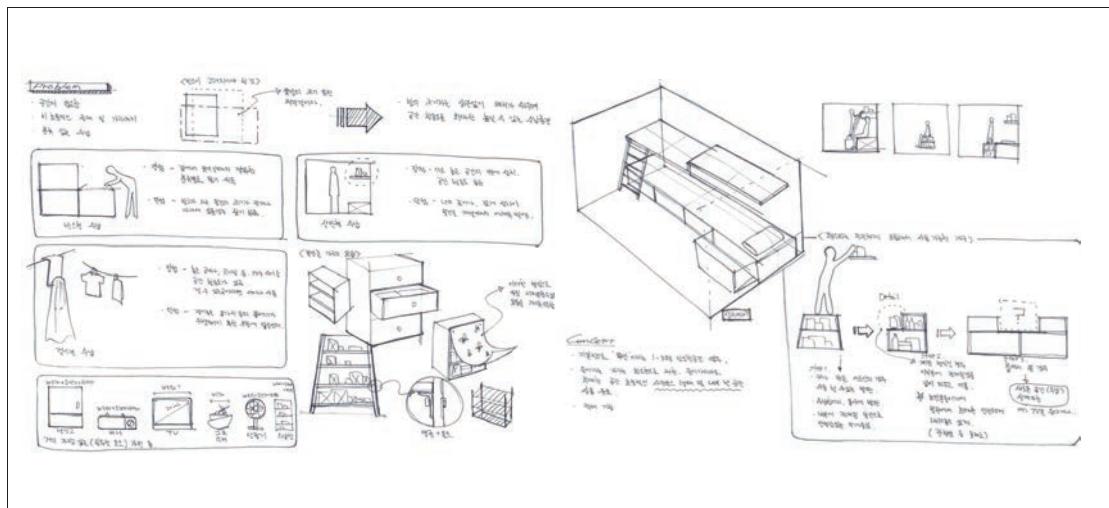
독거노인의 편리한 삶에 필요한 니즈는 부족한 수면과 수납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안전한 삶에 필요한 니즈는 어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에 필요한 니즈는 빨래 및 건조 문제, 화장실 및 샤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독거노인의 사회적인 삶에 필요한 니즈는 정보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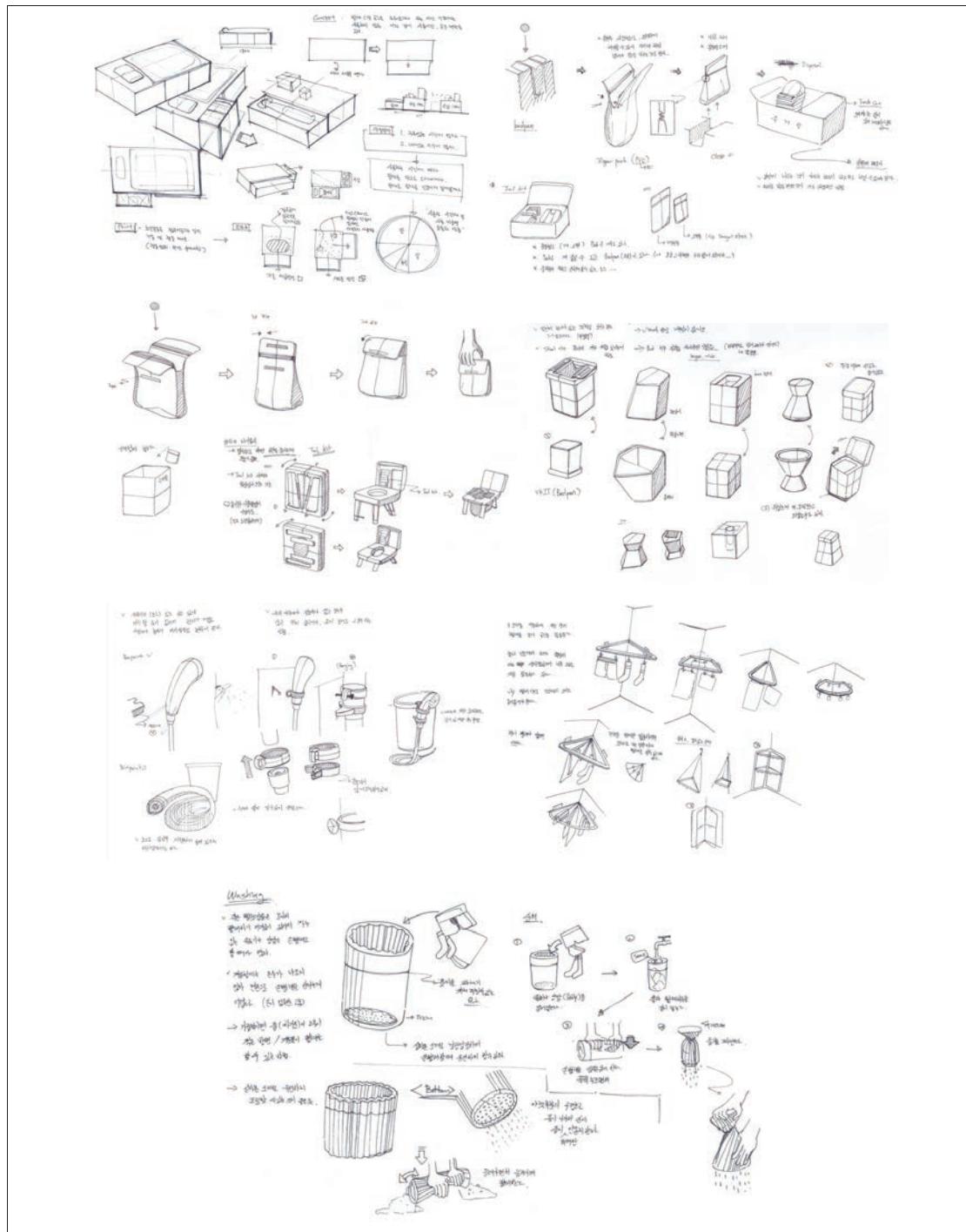
다음으로, 네 가지 카테고리로부터 각각 추출된 핵심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러프(rough)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디자인해야 할 아이템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림 34> 인간다운 삶에 대한 분류 및 핵심아이템 추출

연구진들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활용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서 아이템들의 종류 및 영역을 크게 수납공간, 화장실, 샤워, 빨래 및 건조 등의 범위로 분류하였다.





<그림 35>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과정

일차적으로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브레인스토밍 해본 결과, 몇몇 아이템들은 디자인 자체로서의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성 여부와 향후 유지 보수 등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일례로 1가구 당 간이 화장실 키트는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긴 하나, 실제 사용자인 독거노인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연구의 접근을 위해서는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세부적 환경의 면밀한 관찰을 통하여 디자인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질적인 문제점의 해결 여부를 보다 설득력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02 환경 분석에 따른 디자인의 방향성 도출

앞의 프로세스에서 분석되었듯이, 쪽방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디자인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먼저 쪽방 거주 독거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간살이 물품들을 내용별로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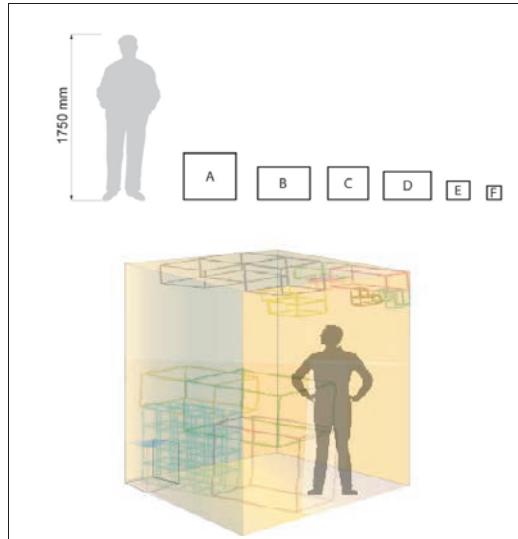
물리적으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의 필수 생활물품들을 최소한의 공간 내에서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세간살이들을 크기에 따라 각각 소·중·대(작은 사이즈, 보통 사이즈, 큰 사이즈)로 분류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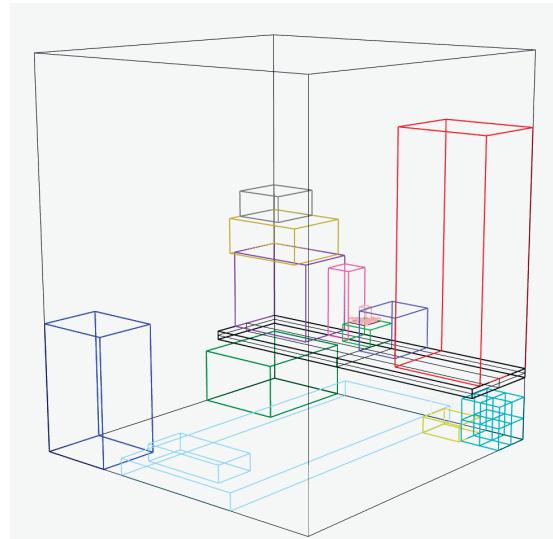
<그림 36> 쪽방 독거노인 세간살이 대·중·소 분류

<표 14> 쪽방촌 독거노인 세간 분류

구분		증분류		소분류	
쪽방 독거 노인 세간 살이 물품	식생활	조리세척, 취사식기 제품	사용영역	주방, 싱크대, 식탁, 등	
			해당기기	대: 550x500x490	전자레인지
			해당기기	중: 150X150X400	부탄가스버너, 음식물처리기
			해당기기	소: 240X200X90	커피포트, 전기밥솥
		가전제품, 의류용품	사용영역	선반, tv선반, 의류, 이불, 등	
			해당기기	대: 500X350X450	TV, 가구, 냉장고, 큰 선반
			해당기기	중: 500X300X600	이불, 옷, 옷걸이, 작은 선반
			해당기기	소: 120X100X50	속옷, 생활용품(기타 등)
	위생	세면용품 (목욕, 세면)	사용영역	공용화장실 내, 세면용품 등	
			해당기기	대: 400X300X300	세수대야
			해당기기	중: 300X300X300	수도꼭지, 거울, 수건
			해당기기	소: 100X100X30	칫솔, 비누
		생활용품 (청소, 세탁)	사용영역	화장실, 공용공간, 계단, 외부공간	
			해당기기	대: 500X350X450	신발장
			해당기기	중: 300X300X300	청소기, 다리미, 건조기,
			해당기기	소: 200X100X30	신발
	주거 환경	냉난방	사용영역	방안, 외부(실외공간) 등	
			해당기기	대: 500X500X500	선풍기, 보일러시설
			해당기기	중: 400X400X350	전기장판, 온풍기, 스토브
			해당기기	소: -	해당사항 없음
		조명	사용영역	방안, 복도	
			해당기기	대: -	해당사항 없음
			해당기기	중: 500X20X10	형광등, 백열등
			해당기기	소: 30X10X10	기타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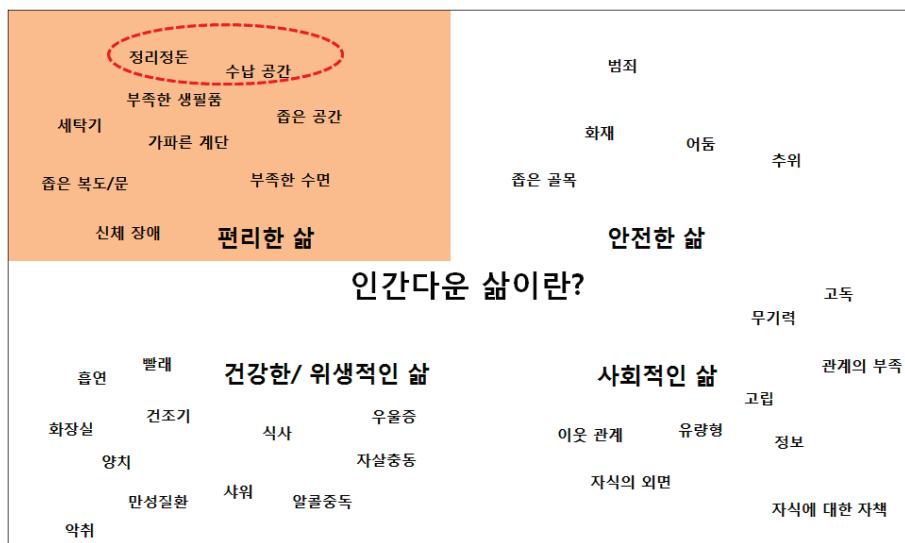


<그림 37> 쪽방의 세간살이 중·소 사이즈로의 공간구성



<그림 38> 세간살이 공간 구성

독거노인들의 세간살이들을 분류하고 재배치하는 아이디어의 발상을 통해서, 세간살이 ‘정리정돈’과 ‘수납공간’이라는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독거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돋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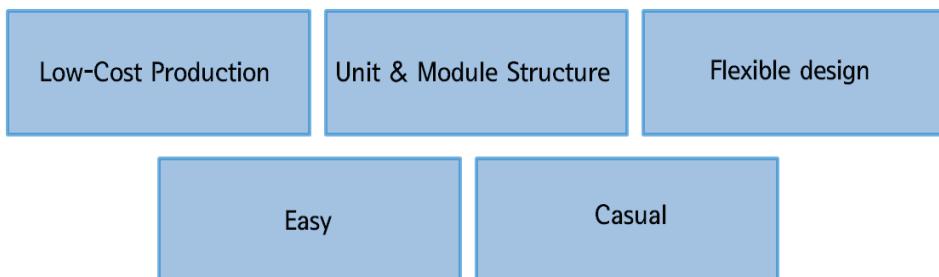


<그림 39> 디자인의 방향성 키워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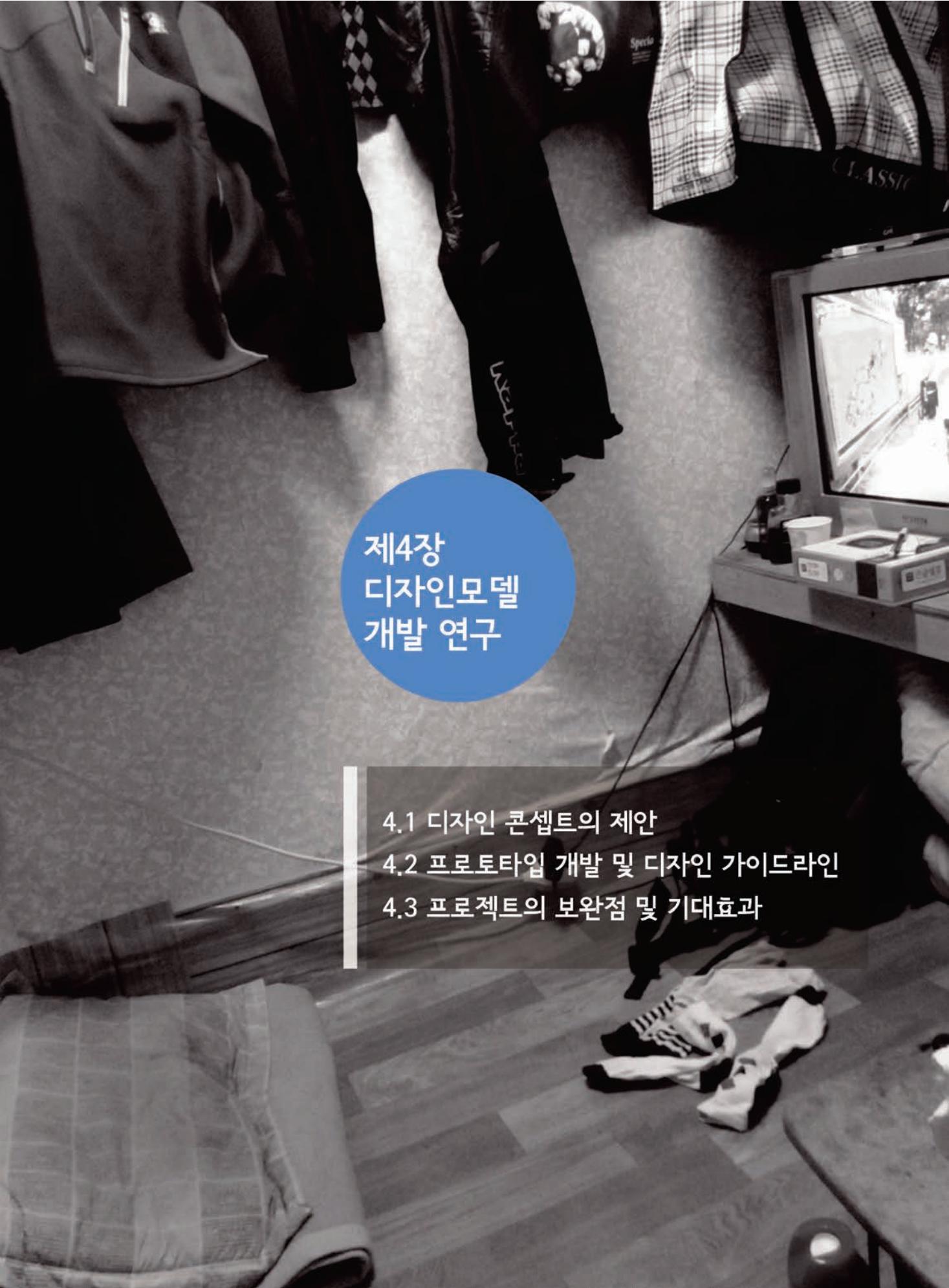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접근을 통해서 본 연구는 쪽방 거주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네 가지의 니즈 카테고리 중에서 편리한 삶에 디자인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수납공간의 확보와 어지럽게 산재해 있는 세간살이의 효율적 보관과 정리정돈을 위한 수납가구시스템 디자인을 메인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비교적 사용 빈도수와 니즈(가장 불편한 점의 최소한의 해소)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한 작은 사이즈와 중간 사이즈의 세간살이 수납을 위한 가구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디자인의 가변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음의 4장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디자인은 일차적으로 저비용(low-cost production)으로 생산될 수 있어야 하며, 유닛과 모듈 형식에 의한 조립구조(unit & module structure)로 가변성과 유연성(flexible design)을 지녀야 한다. 또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쉽게 사용 가능한 캐주얼(easy & casual)한 디자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림 40> 디자인의 주요 방향성



제4장 디자인모델 개발 연구

- 4.1 디자인 콘셉트의 제안
- 4.2 프로토타입 개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 4.3 프로젝트의 보완점 및 기대효과

제4장 디자인모델 개발 연구

4.1 디자인 콘셉트의 제안

인간이라면 무엇인가를 기다리거나 희망하고 갈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초단위 생활공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본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훨씬 짧으며, 궁핍한 경제적 여건과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향후 삶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어 이들의 사고는 부정적 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다림이 또 다른 기다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대상을 ‘만남’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즉, 독거노인들에게 희망을 직접 전달하여 행복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우체국’이 16년 연속으로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을 지향하는 관계 부처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우체국’이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우체국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상징성을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징성은 의외로 단순하다. ‘내가 기다리는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배달해준다.’는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골목 어귀에서 집배원 아저씨가 가져다줄 가족이나 연인의 편지를 손꼽아 기다리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독거노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추억과 노스텔지어(nostalgia)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은 없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어도 그들의 편지를 기다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디자인 프로젝트의 목표는 독거노인들에게 ‘편지’ 한 통을 배달해드리는 것이다. <편지(片志)>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시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에 부합될 수 있는 디자인 콘셉트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이자 감동을 전사하는 메신저로서, 진정한 서비스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편지(片志) :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편지는 <片紙>가 아닌, <片志>이다.

즉, 片志는 유닛 구조(片)의 방식의 조립식 수납가구 패키지를 배달하는 정성 어린 마음과 뜻(志)을 상징하는 은유적 메타포(metapho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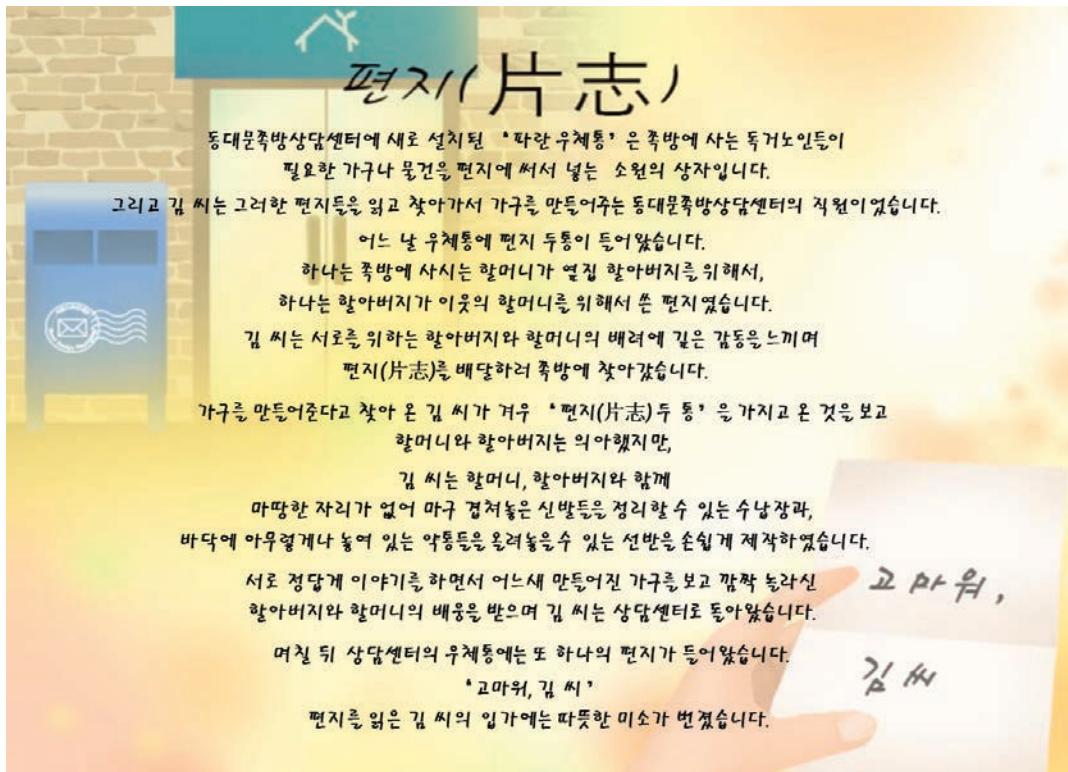
편지를 배달하는 봉사자들은 사람의 따뜻한 정(情)을 기대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편지(片紙)를 읽어드리듯, 배달하는 봉사자들은 우리의 <편지(片志)>를 열어 조각들을 함께 조립하면서 서로 간에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01 스토리텔링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콘셉트 ‘편지(片志)’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을 제안하는 이유는 기존의 유사 연구사례와 차별화된 콘셉트와 결과물을 찾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이고, 연구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과 피드백(feedback)을 거치면서 시민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쪽방촌 현장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실제 눈으로 확인했던 연구진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답고 편리하며 기능적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디자인 또한 더욱 가치 있음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림 41>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의 시나리오

봉사자(봉사차량)가 쪽방촌의 독거노인에게 편지(유닛형 수납가구 패키지)를 배달하는 것은 단순 배달을 뛰어넘어 봉사자와 독거노인이 함께 편지봉투를 열어 가구를 조립하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독거노인들에게 디자인을 받아 보기만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필요한 아이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 또한 주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 프로젝트가 일회성 이벤트나 비정기적인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산을 통하여 선순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의 세부적인 시나리오이다.



[Storytelling #01]

편지를 배달하는 파란 트럭이 쪽방촌에 도착한다.



[Storytelling #02]

파란 유니폼을 입은 봉사자가 쪽방촌의 독거노인 김 할머니에게 편지를 전해준다.



[Storytelling #03]

봉사자는 편지만 전달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패키지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가구를 만들어 주면서 할머니와 함께 담소를 나눈다.



[Storytelling #04]

20분 정도가 지나자, 할머니가 평소 필요했던 작은 테이블이 완성되었다.



[Storytelling #05]

할머니는 봉사자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한다.



[Storytelling #06]

김 씨 할머니는 쪽방촌의 이웃인 박 씨 할아버지가 약통들을 정리할 수 있는 보관함이 필요함을 알고, 파란 우체통에 소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적어 보낸다.



[Storytelling #07]

며칠 뒤, 김 씨 할머니가 보내 편지를 읽은 봉사자가 박 씨 할아버지를 위해 새로운 편지를 배달하러 왔다.
약통 보관함이 곧 완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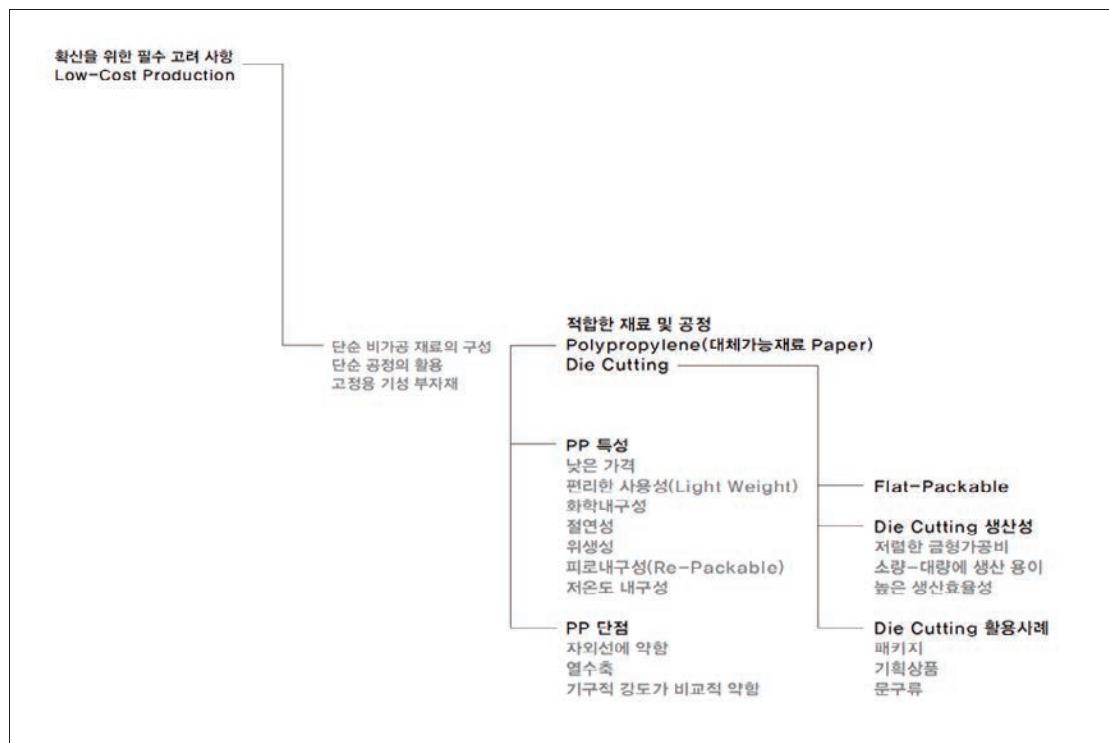
편지 배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순환되면 따뜻한 정(情)의 나눔도 계속될 것이다.

<그림 42> 스토리텔링 전개 과정

02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고려 요소

‘편지(片志)’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3장의 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저비용, 고효율의 체제로서 제품이 대량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정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가격이 저렴한 비 가공재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이 단순해야 하며, 제품의 구성에 필요한 고정용 기성 부자재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3> 서비스 확산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03 머티리얼(material)의 선정

본 연구진이 세간살이 수납을 위한 가구디자인의 주재료(main material)로 선정한 것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이다. 폴리프로필렌은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용 우유병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노인들에게도 사용자 친화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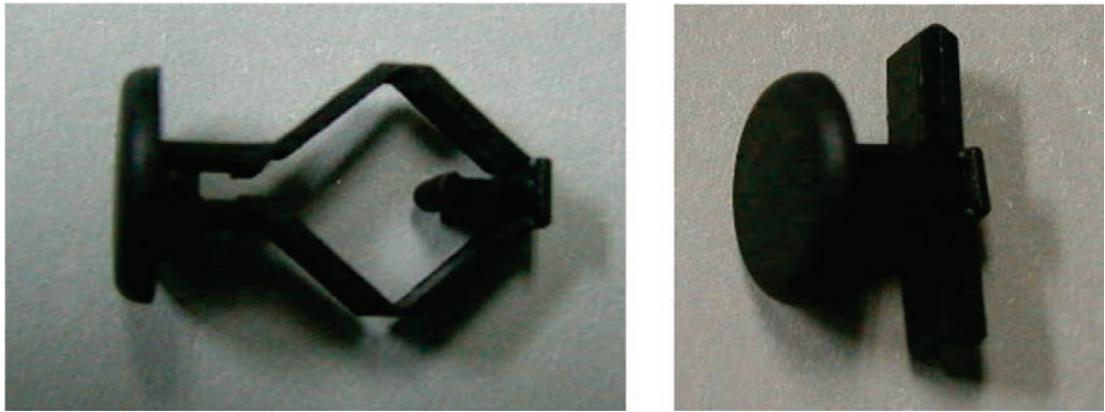


<그림 44> 폴리프로필렌의 이미지

소재	장점	단점
폴리프로필렌 (PP:polypropylene)	가벼우며 충격에 강하고 깨지지 않아 안전하다. 뜨거운 물에 넣어도 변형되거나 환경호르몬이 방출되지 않아 끓는 물 소독이 가능하다.	투명도가 떨어지고 상처가 나기 쉬워 다른 젖병에 비해 수명이 반 정도 짧다. 젖병을 세척할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젖병용 솔이나 스펀지를 이용해야 한다.
유리	젖병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유리는 강화성 유리로 열에 강하고 환경호르몬을 방출하지 않는다. 끓는 물 소독, 증기 소독, 전자레인지용 소독은 물론 약품 소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독할 수 있어 위생적이다.	깨질 수 있는 유리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아이가 혼자서 잡고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잡고 수유해야 한다.
폴리에스테르су폰 (PES:polyether sulfone)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비스 페놀 A가 없는 안전한 신소재다. 내열성이 높아 고온에서 열탕 소독을 하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충격에도 강한 편이다.	내용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깨질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PES는 미국 FDA가 승인한 인체에 가장 안전한 소재이다.
폴리카보네이트 (PC:polycarbonate)	폴리카보네이트(PC)는 폴리탄산에스테 약자다. 열과 충격에 강한 뿐 아니라 가볍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을 가진 강도 높은 플라스틱으로 젖병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젖병 소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젖병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이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히 입증되지 않아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다.
폴리아미드로 (PA:polyamide)	폴리아미드로는 나이론 계열의 신소재를 말한다. 매우 가벼울 뿐 아니라 내구성이 좋아 충격에는 강하지만 내열성은 그리 높지 않아 젖병을 증기 소독하기는 어렵다.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며, PES의 단점인 투명성을 어느 정도는 개선한 소재이지만 가격이 비싸다.

<표 15> 폴리프로필렌의 장단점(우유병 소재로서의 비교)

주재료인 ‘폴리프로필렌’과 함께 고정용 기성 부자재로 선택한 것은 ‘락스냅(locksnap)’이다. 락스냅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유닛 패널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고정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



(규격 : 외경 15¢, 재질 : PP, 중량 : 0.7g, 컬러 : 화이트 or 블랙, 가격 : 개당 11원)

<그림 45> LOCKSNAP 연결부자재

4.2 프로토타입 개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01 프로세스 도큐먼트(document)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주안을 두었던 부분은 프랙티컬(practical)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과정이었다. 컴퓨터 렌더링에만 국한된 발상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1:1 스케일의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실험을 통해 디자인의 설득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실험의 목적은 생산 공정을 고려한 디자인의 확장성을 타진하는 것이며, 선정된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이 가볍고 얇은 구조를 지닌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하중을 분산시켜 적당량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더불어 연결부자재로 선택한 락스냅(locksnap)이 유닛과 유닛을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실험 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따른 유형별 사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데 적합한 유닛들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유닛들의 결합을 통해 유기적이고 구조적인 모듈시스템의 완성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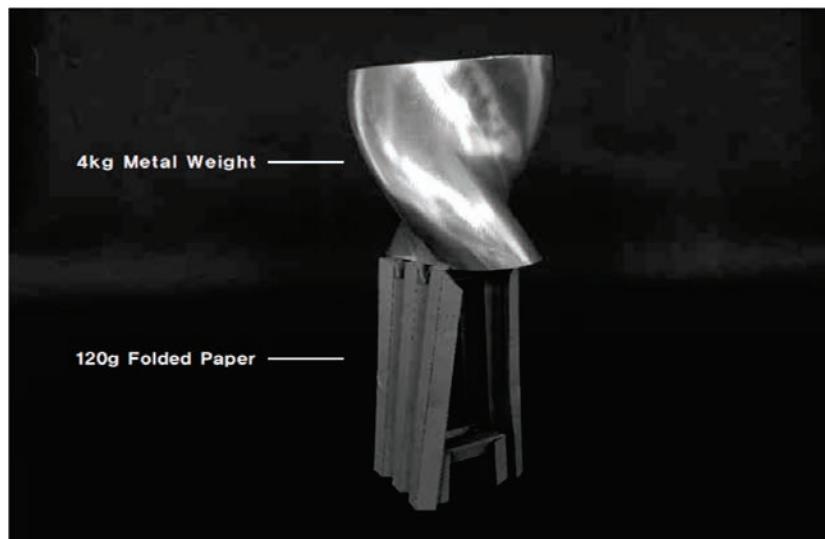
높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실험 과정은 실제 재료 대신 페이퍼(paper)를 활용하여 개별 유닛의 형태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리서치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유닛의 표면에 폴딩(folding) 구조가 적용되는 방식이 가장 효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스터디 과정은 크게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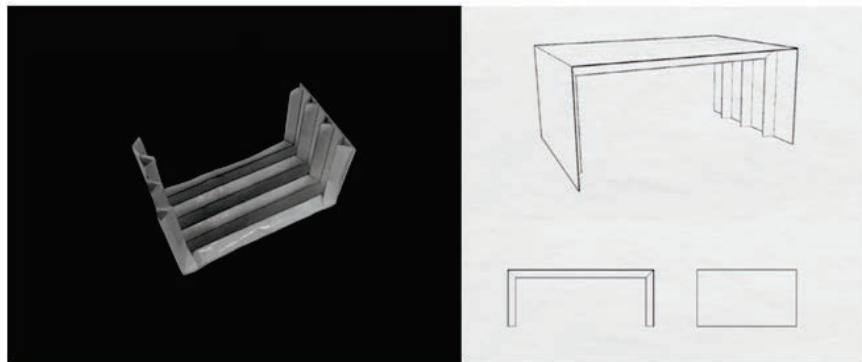
- 1) 하중의 방향에 따른 구조의 스터디 : 위쪽 → 아래쪽 / 아래쪽 → 위쪽
- 2) 방향의 전환에 따른 구조의 스터디
- 3) 박스형 구조에 관한 스터디
- 4) 결합 구조에 관한 스터디
- 5) 확장의 가능성에 관한 스터디
- 6) 비례와 강도에 관한 스터디

특히, 무게에 관한 실험(하중을 견딜 수 있는 스터디)을 통해서는, 120g의 가벼운 페이퍼 구조가 4kg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독거노인의 세간살이 중 구형 텔레비전의 무게가 약 20kg임을 감안할 때, 600g의 유닛 구조 위에 텔레비전을 올려놓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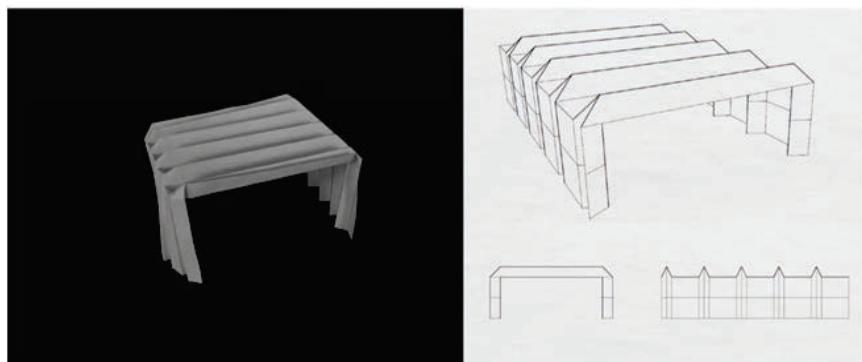


<그림 46> 무게에 관한 스터디(120g의 가벼운 구조가 4kg의 무게 지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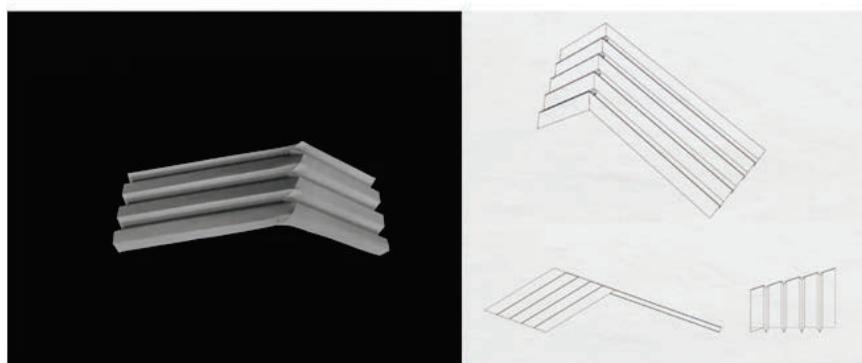
A. 하중 방향에 따른 구조 스터디 1-1(위에서 아래로)



B. 하중 방향에 따른 구조 스터디 1-2 (아래에서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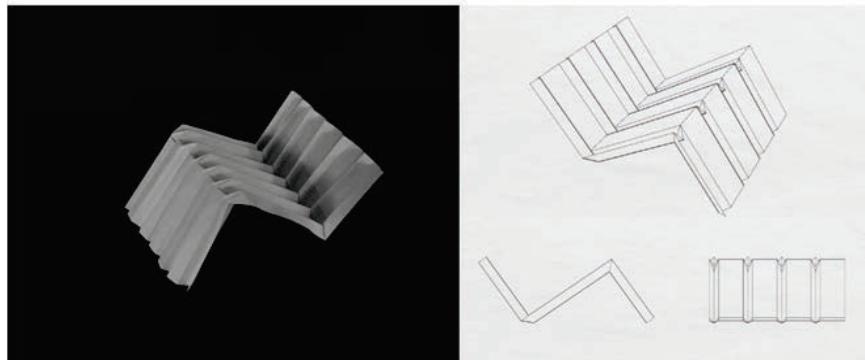


C. 방향전환 구조 스터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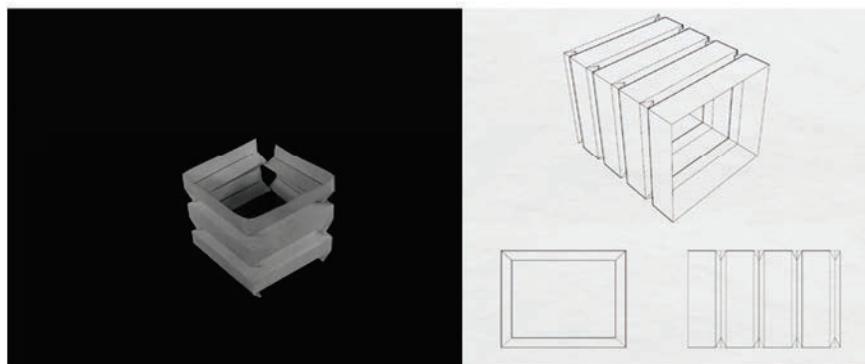


<그림 47> 강도에 따른 구조 스터디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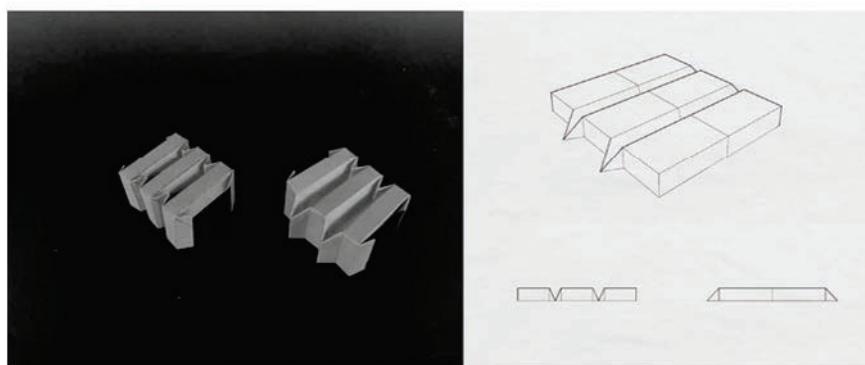
D. 방향전환 구조 스터디 1-2



E. 박스형 구조 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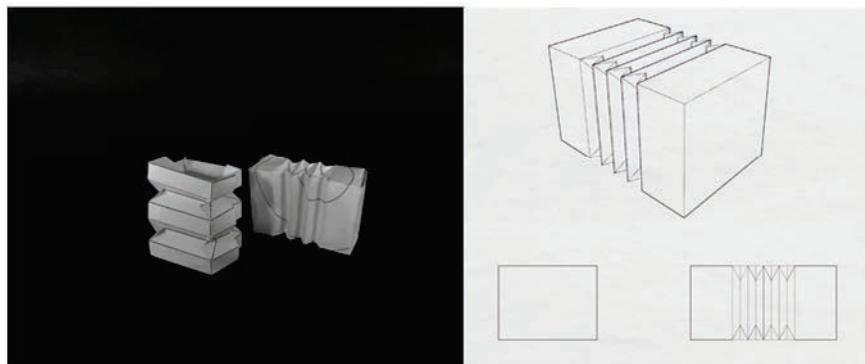


F. 결합구조 스터디 (negative type, positive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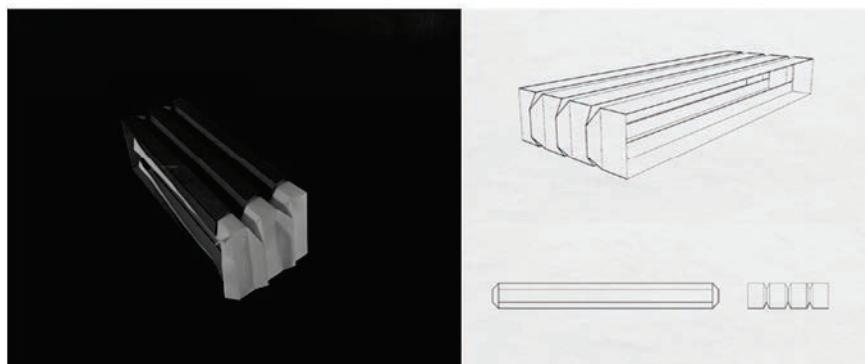


<그림 48> 강도에 따른 구조 스터디 (D, 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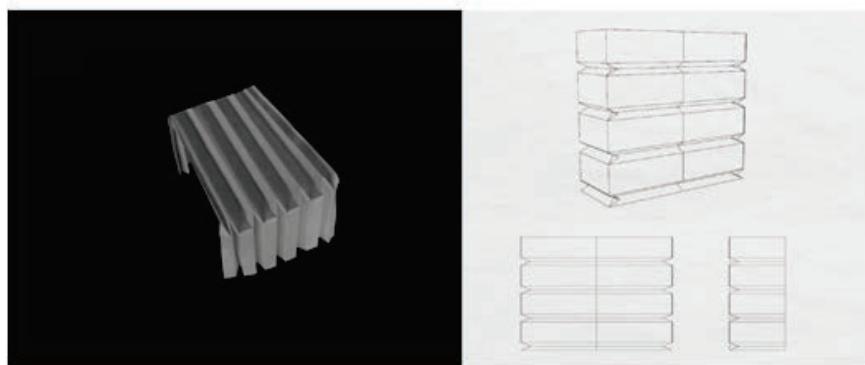
G. 확장 가능 구조 스터디 1-1(Accordion type)



H. 확장 가능 구조 스터디 1-2(Sliding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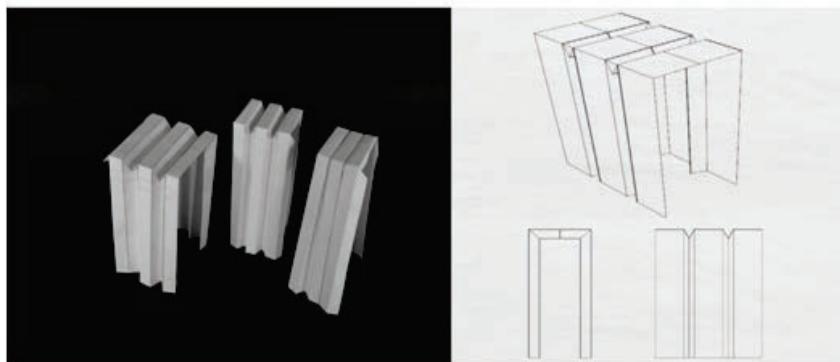


I. 비례와 강도의 관계에 대한 스터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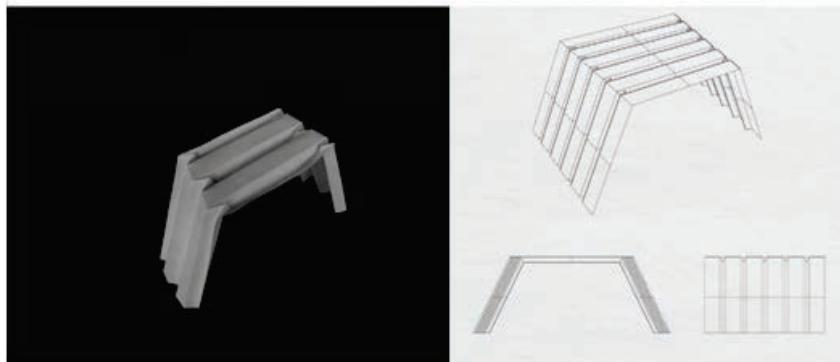


<그림 49> 강도에 따른 구조 스터디 (G, H, I)

J. 비례와 강도의 관계에 대한 스터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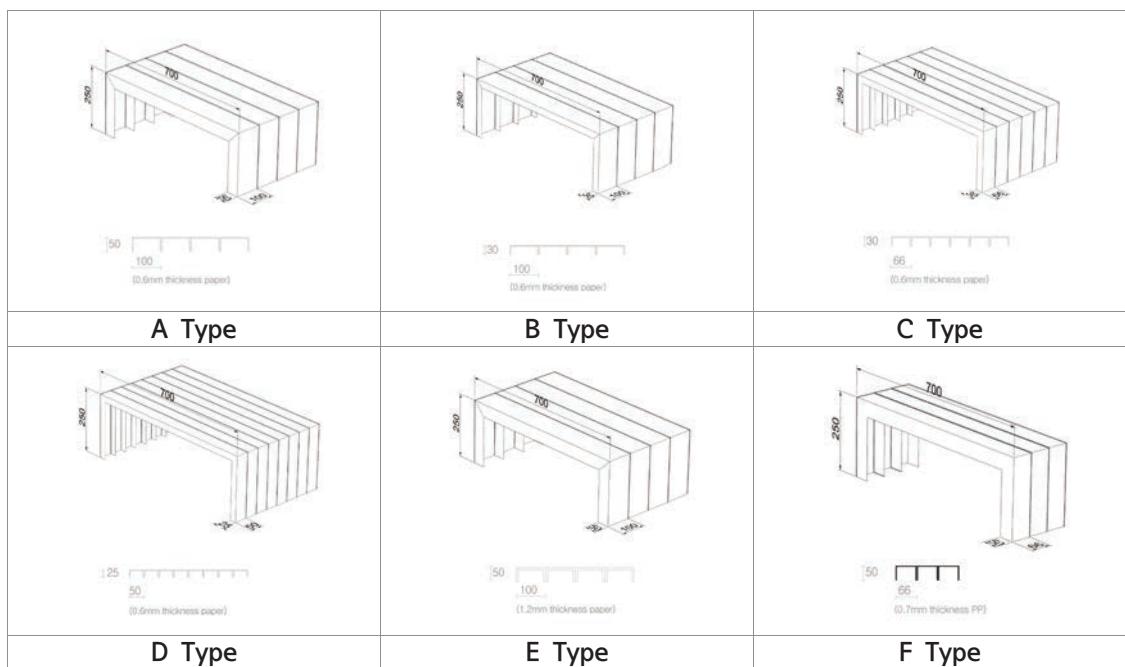


K. 비례와 강도의 관계에 대한 스터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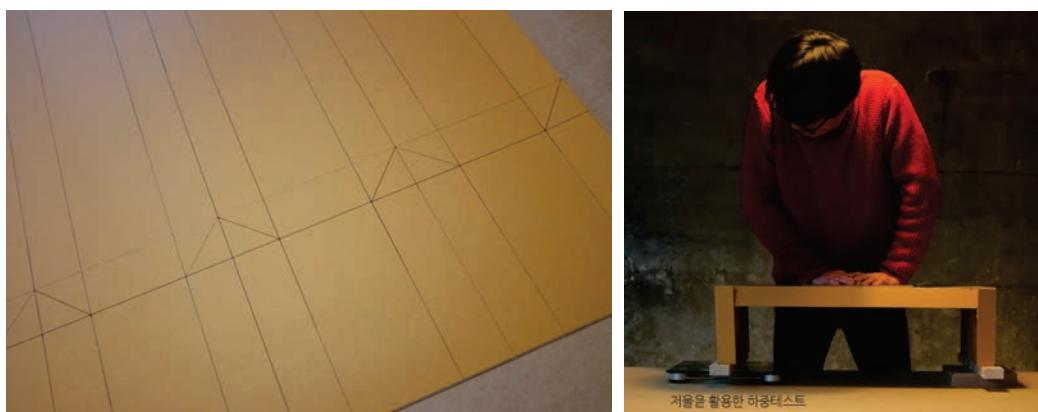


<그림 50> 강도에 따른 구조 스터디 (J, K)

첫 번째 실험을 통해 제안된 총 11가지의 유닛들 중에서 형태적, 구조적으로 안정된 6개의 유닛을 선정하였다. 이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선정된 6개의 유닛들을 1:1 스케일로 확장하여, 개별 유닛의 하중 강도를 각각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타이핑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6개의 유닛 및 실험 리서치 장면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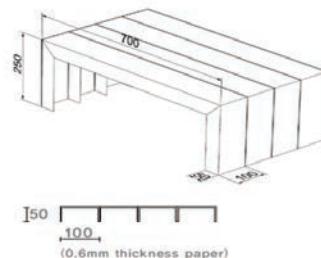


<그림 51> 선정된 6개의 유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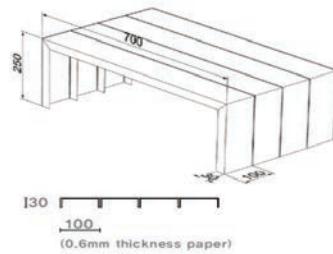
<그림 52> 생산을 고려한 페팅라인이 적용된 페이퍼 및 저울을 활용한 하중테스트 장면

A TYPE / 하중강도 29.6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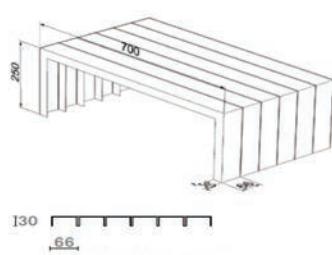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간의 조건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

B TYPE / 하중강도 15.6 kg



강도를 떨어뜨리는 조건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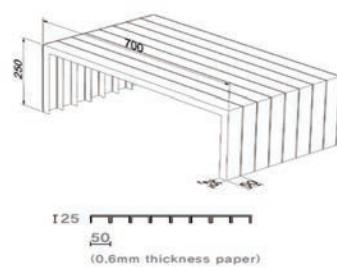
C TYPE / 하중강도 19.4 kg



강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건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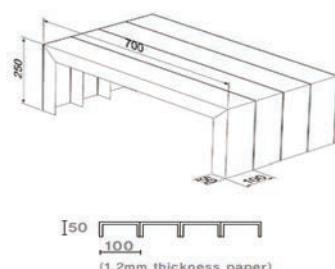
<그림 53> 하중강도에 따른 구조 스타디 실험 (A, B, C TYPE)

D TYPE / 하중강도 16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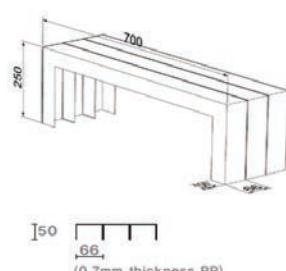
앞 과정에 따른 강도 영향 조건의 확인

E TYPE / 하중강도 46 kg



이전 스터디 과정 적용과 재료의 개선

F TYPE / 하중강도 38 kg



이전 스터디 과정과 리얼 매테리얼을 적용한 사례

<그림 54> 하중강도에 따른 구조 스터디 실험 (D, E, F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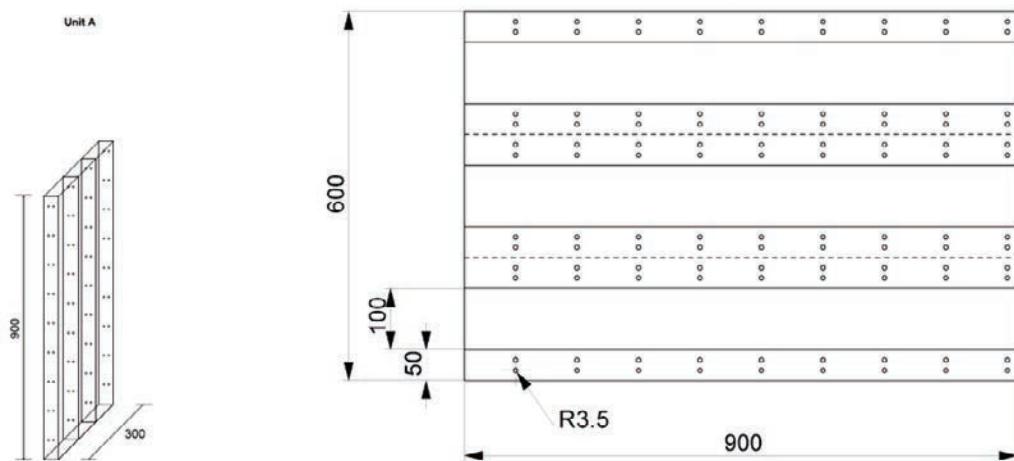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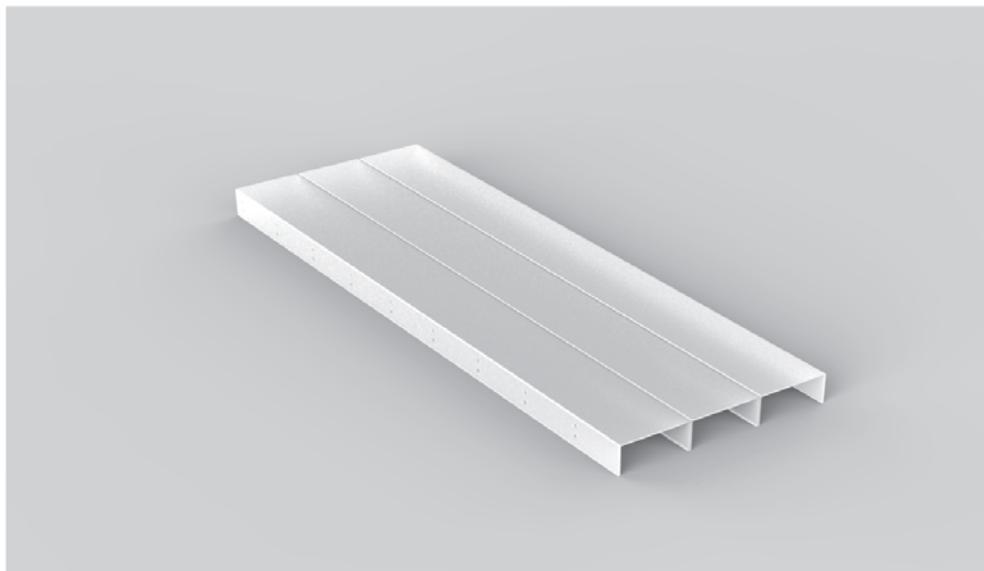
총 여섯 개(A, B, C, D, E, F) 유닛에 따른 각각의 하중강도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닛 E와 유닛 F의 강도가 가장 우수함이 판명되었으며 이에 관한 매트릭스(matrix) 결과는 아래와 같다.

테스트 기준 Test criteria	타입별 분류					
	A: 50, 100 / (기준) (Thickness 0.6)	B: 30, 100 (Thickness 0.6)	C: 30, 66 (Thickness 0.6)	D: 25, 50 (Thickness 0.6)	E: 50, 100 (Thickness 1.2)	F: 50, 100 (PP/Thickness 0.7)
최대허용 무게 (Maximum weight)	0	-	-	-	+	+
내구성 (Durability)	0	0	0	0	0	+
운송성 (Portability)	0	0	0	0	0	0
지속성 (Sustainability)	0	0	0	0	0	-
양산성 (Ease of manufacture)	0	0	0	0	0	+
사용성 (Ease of assemble)	0	0	0	0	-	+
Sum +'s	0	0	0	0	1	4
Sum 0's	6	5	5	5	4	1
Sum -'s	0	1	1	1	1	1
Score	0	-1	-1	-1	0	+3
Rank	3	3	3	3	2	1
Continue?	N	N	N	N	Combine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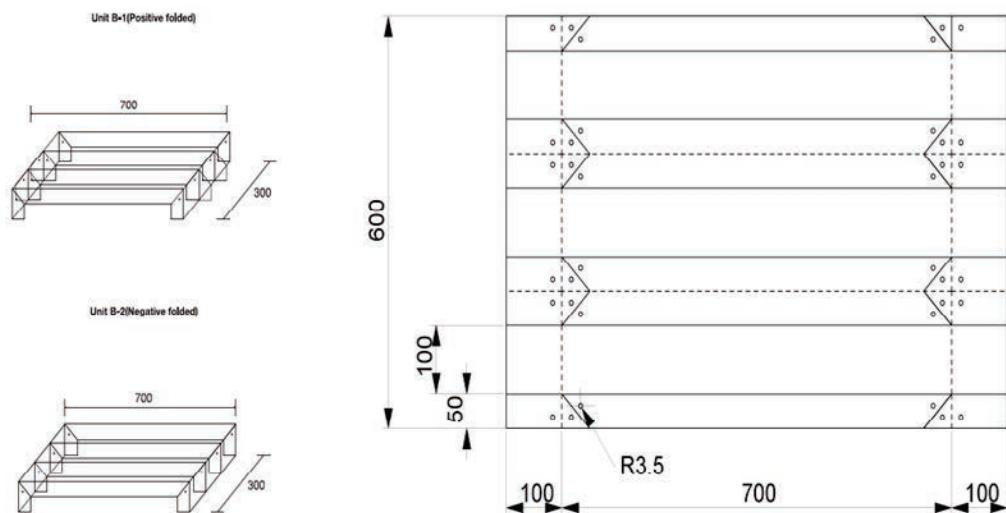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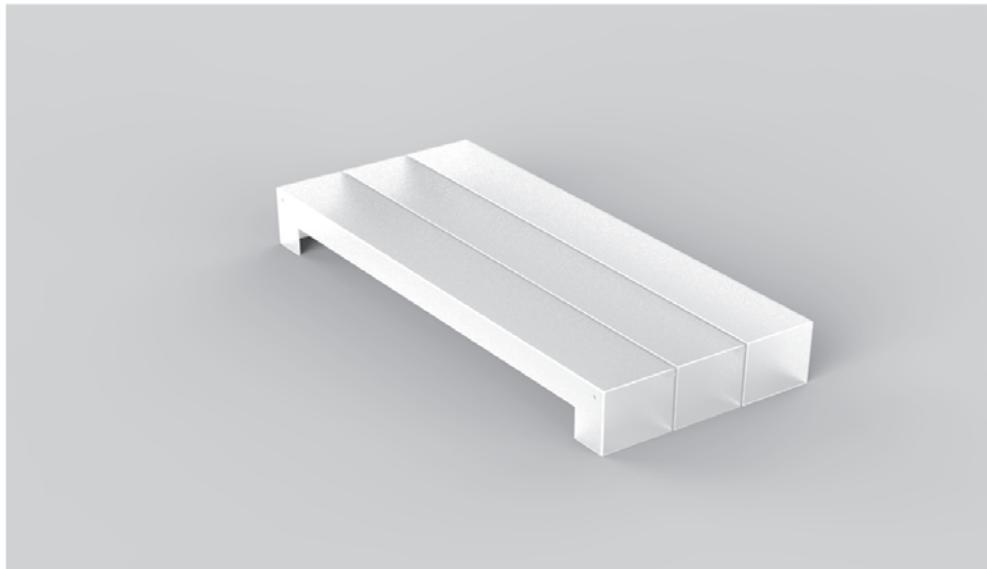
<그림 55> 하중강도 실험 결과

02 최종 디자인된 4개 유닛의 3D 렌더링 이미지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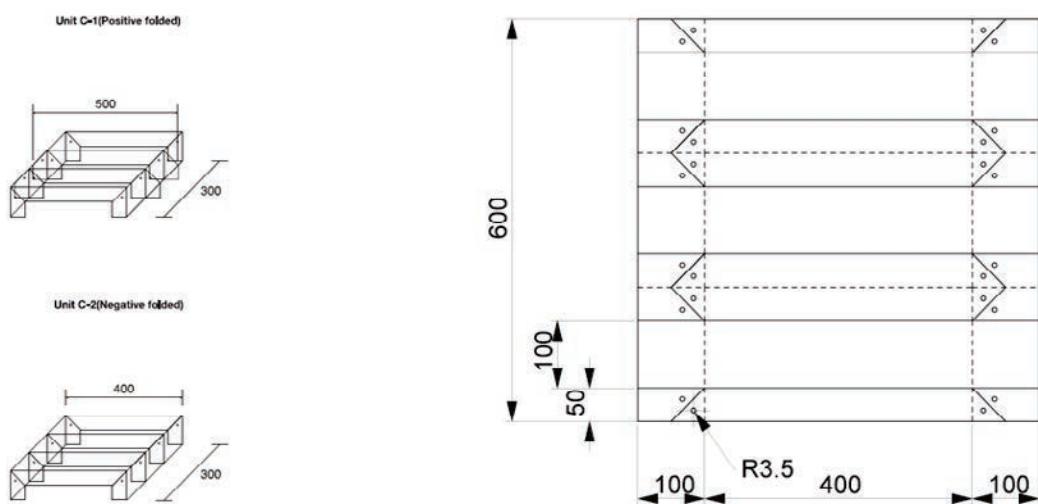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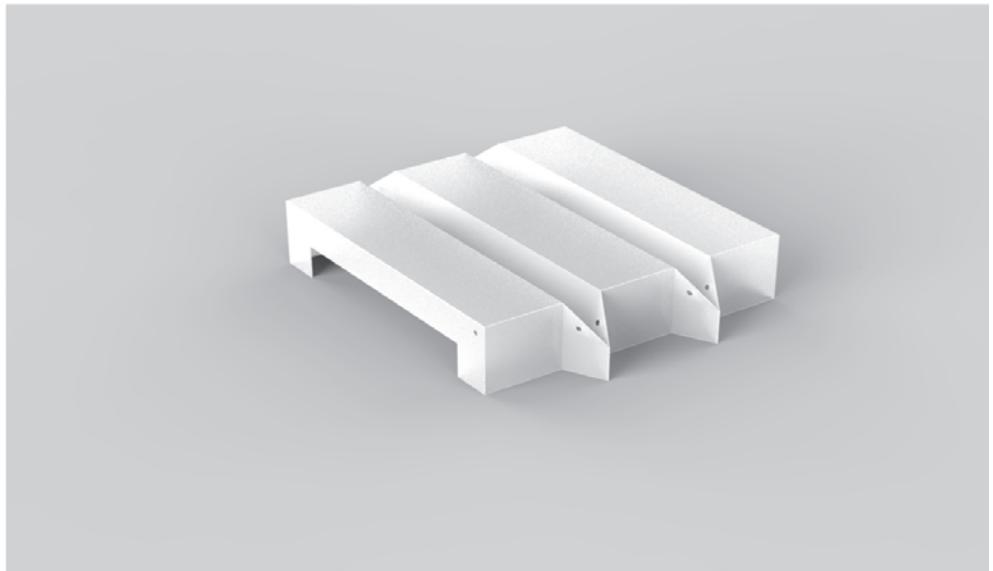
하중강도가 가장 우수한 유닛 E와 유닛 F를 기본 베이스로 하여 다시 4개의 유닛 디자인이 완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unit A, unit B, unit C, unit D가 아래와 같이 디자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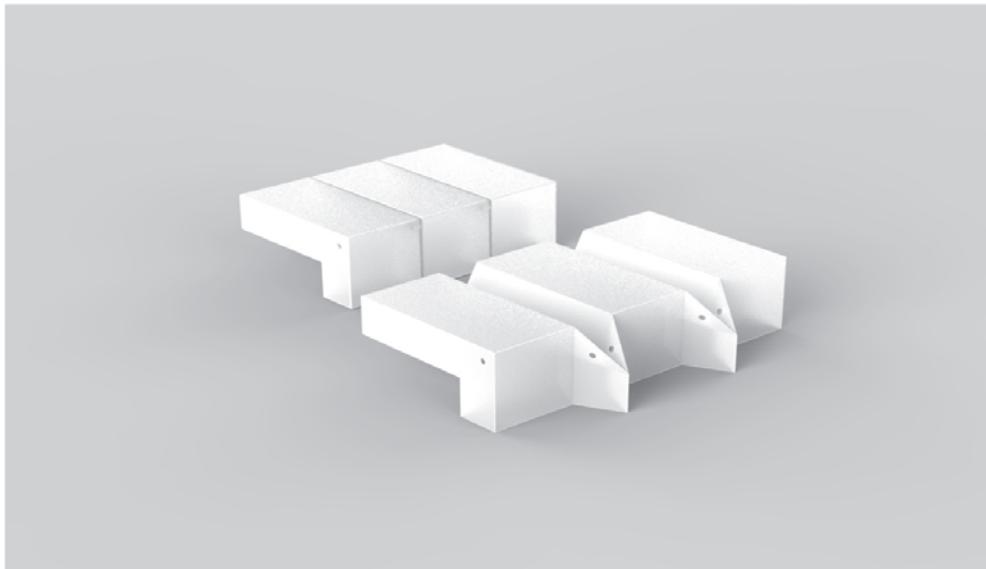
<그림 56> UNIT A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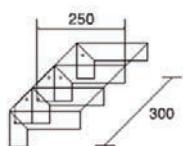
<그림 57> UNIT B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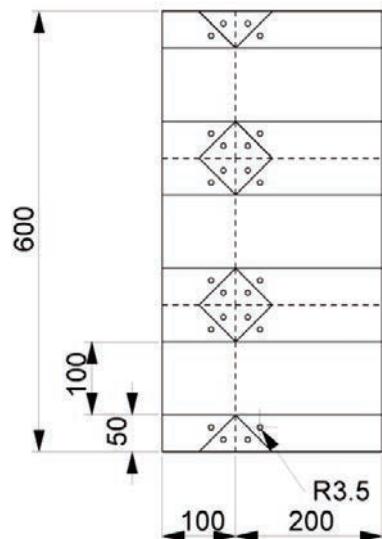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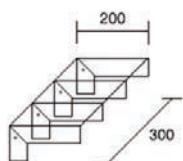
<그림 58> UNIT C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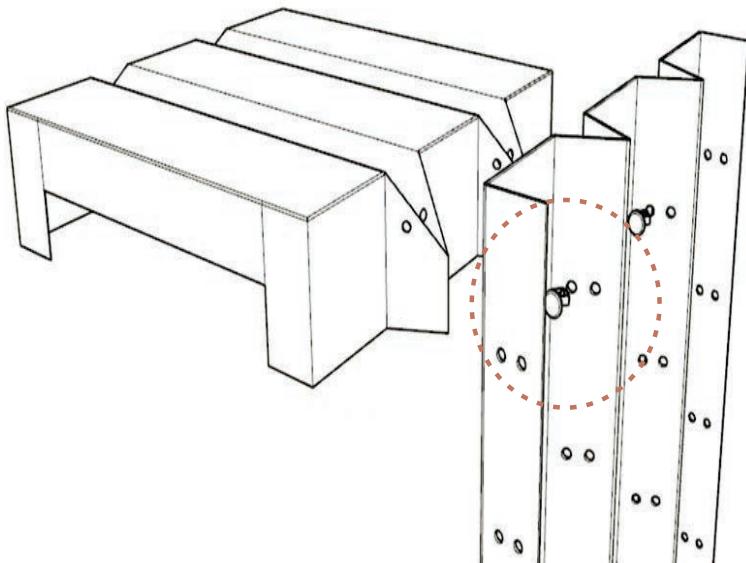
Unit D-1(Positive folded)



Unit D-2(Negative folded)



<그림 59> UNIT D 도면



<그림 60> UNIT 의 결합구조

4개의 유닛을 살펴보면, 각각 네거티브(negative)와 포지티브(positive) 풀딩 구조를 지니고 있다. 부자재인 락스냅(locksnap) 단추를 결합하여 각각의 유닛들을 서로 체결함으로써 수납가구가 조립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쪽방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림 61> 유닛의 조립에 의한 수납가구시스템의 확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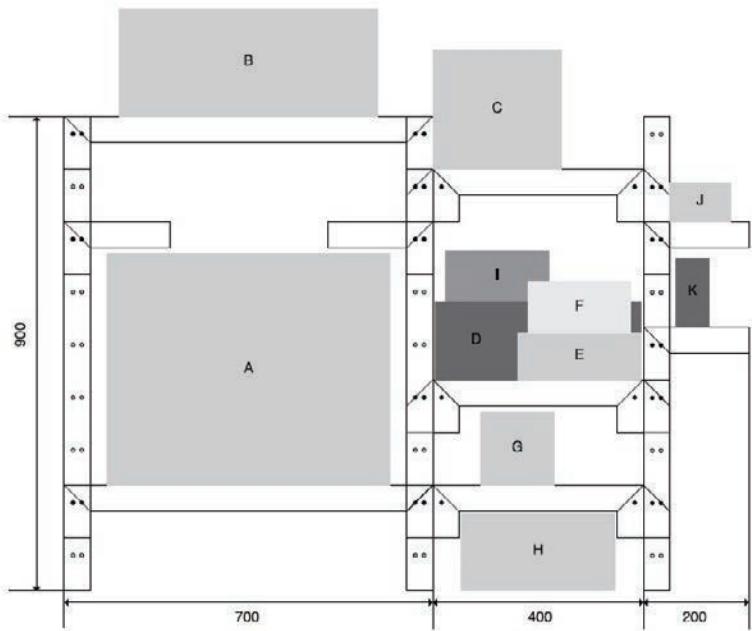
03 패키지(package)의 구성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Components of Package	Unit A	Unit B-1(Positive folded)	Unit C-1(Positive folded)	Unit D-1(Positive folded)	Extra Components
Number of Units	3	3	3	6	64
Material Price	2000 KRW	2000 KRW	1400 KRW	700 KRW	11 KRW
Height(mm)	900	50	50	50	13
Wide(mm)	300	700	400	200	16
Depth(mm)	50	300	300	30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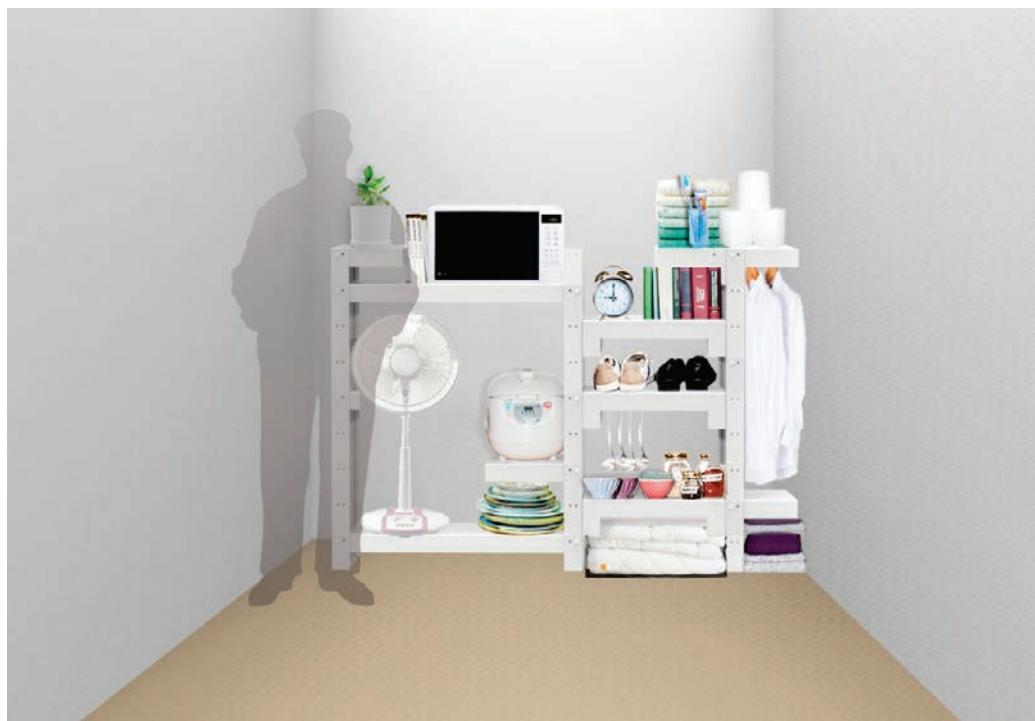
<그림 62> 패키지 구성품 정보

**Dimension
and
spec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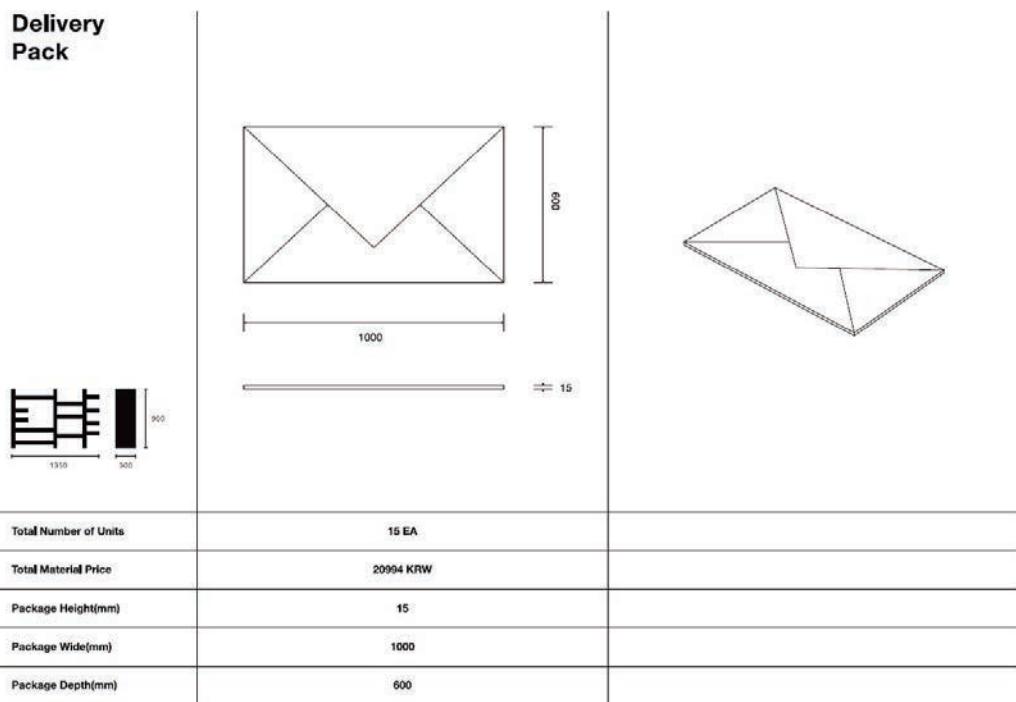
A. TV(W 550 / D 350 / H 450)
B. 라면박스(W 500 / D 300 / H 208)
C. 전기밥솥(W 250 / D 300 / H 230)
D. 식기류(W 400/D 150 / H 150)
E. 기스비너(W 240 / D 200 / H 80)
F. 냄비(W 200 / D 200 / H 100)
G. 식재료(W 144 / D 104 / H 141)
H. 슬리퍼(W 300 / D 600 / H 150)
I. 플라스틱 바가지(W 200 / D 200 / H 100)
J. 세면용품(W 117 / D 143 / H 75)
K. 헤어제품(W 63 / D 140 / H 134)



<그림 63> 패키지 상세 설명서



Delivery Pack



<그림 64> 공간 시뮬레이션 및 외부패키지의 포맷

04 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

Visual identity



<그림 65> 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



<그림 66> 지하철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홍보방법 제안

4.3 프로젝트의 보완점 및 기대효과

향후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자재인 락스냅(locksnap)의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0.7mm 이상의 패널을 활용한 벌집구조(honeycomb structure)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통해 수혜 대상을 선정하여 저렴한 방식으로 보급해야 할 것이며, 제품의 배달 및 설치는 자원봉사로 모집한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는 젊은 학생들이 점차 노인들과 만나거나 접촉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할 때 긍정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간의 연합 전략을 취하거나 독거노인들과의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여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낸다면 본 연구가 활동적 노년(acting aging) 시대에 부합한 프로젝트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화재에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제 가공 시 유발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edge)의 마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세심함도 필요하다. 일반적인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상자 패키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조형적인 완성도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접혀지는 폴딩(folding) 구조를 개선하고 가장자리에 심미적인 스타일링을 추가할 수 있다. 가령 도어(door) 개념의 가림막이나 패브릭(fabric)을 첨부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의 보급을 위해서는 지원자(volunteer) 중심의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희망과 긍정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매뉴얼(manual) 교육을 진행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후속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품의 보급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후원자의 도네이션(donation), 혹은 서울시(官)가 무상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 가시적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인 우체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의 대상이다. 우체국 집배원들이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진이 제안하는 디자인 제품들도 자연스럽게 배달될 수 있다. 만약 독거노인이 필요한 아이템을 원할 경우, 최근 사용빈도가 낮아진 기존 우체통을 활용하여 소원수리를 하는 방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67> 향후 기대효과



제5장 결론 및 제언

5장 결론 및 제언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국형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문제도 중요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과 관련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독거노인들의 주 거주공간인 ‘쪽방촌’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배려 대상인 독거노인들의 ‘기초단위 생활공간’으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쪽방촌’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식으로 수록되어 있을 만큼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 과제 중에서도 ‘쪽방거주 독거노인의 세간살이 수납을 위한 조립식 가구디자인 연구’라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을 다루었다.

하지만 독거노인들의 실제 거주 환경과 실상은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한 것보다 훨씬 열악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연구과제의 핵심이 되었으며 향후 관련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임을 직시해야 있다.

본 연구 과제를 토대로 향후 진행될 후속 과제들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려대상, 즉 소외된 계층을 위한 디자인은 조형성이나 기능성보다는 사용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감성 디자인(emotional design)이 우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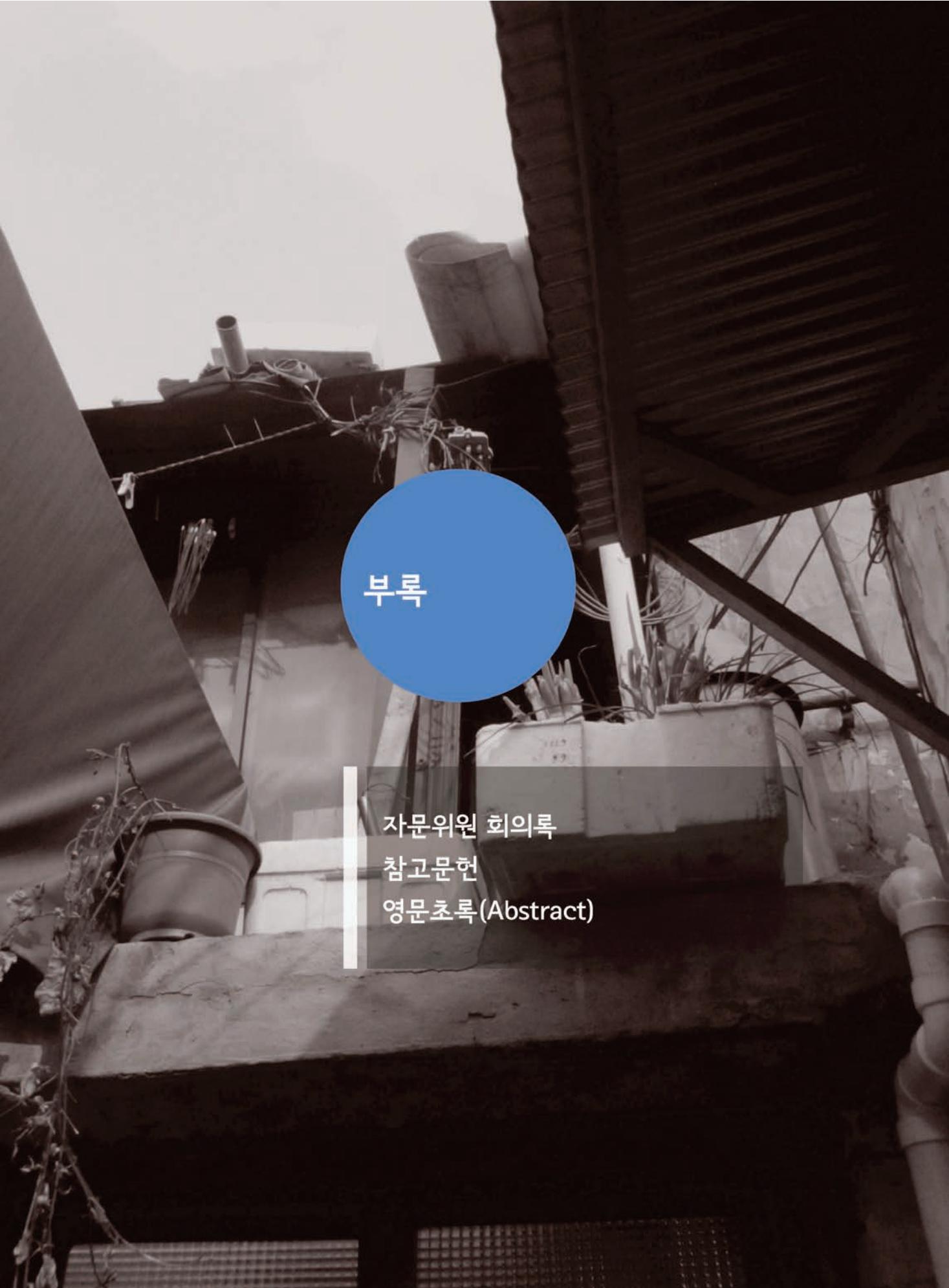
둘째, 연구를 위한 디자인,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처럼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연구보다는 구현 가능성성이 크고 현실적인 디자인(practical design)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용재료 선택에 있어 경제적 논리에 치중하여 저비용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인체에 해롭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제하는 환경친화적인 디자인(eco-friendly design)이어야 한다.

넷째, 최종 연구결과물은 그 자체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향후 지속 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연구 과제를 부여하는 기관과 이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연구진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평적 협동 과제(collaboration project)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번 과제를 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확산과 실제 적용에 최종 목표가 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연구 단계가 초반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하며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사랑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가져 본다.



부록

자문위원 회의록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자문위원 회의록

01 제1차 연구 자문회의

> 회의개요

- 일시 : 2014.08.25.(월), 15:00~18:00
-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9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12인
 - 연구진 : 양영완 홍익대 교수, 이경돈 신구대 교수, 김주연 홍익대 교수, 문찬 한성대 교수, 이재준 새동네연구소 소장
 - 서울디자인재단 : 강병길 소장, 신윤재 팀장, 강지혜 선임

> 강병길 소장

- 연구 결과물의 구현을 전제로 진행이 이루어져야 함. 과제 프로토타입 가이드라인까지 진행하고 시민서비스디자인센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현하도록 할 것.
- 연구 대상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20대, 60대 이상 건강 상태에 따라 프로토타입의 종류가 나눌 수 있음. 이에 대한 의견 반영할 것.

> 문찬 교수 (한성대학교)

- 연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택, 가구, 제품 등 유형이 불명확함.
- 미국 아이아이티 옆 빙곤층이 살고 있는 거대 아파트 단지의 슬럼화 지역을 시에서 경리, 밤퍼 목사가 20여 년 전부터 노숙자 지원. 참여자의 자존을 위해 무상이 아니라 소량의 돈을 받음. 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쌍방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며, 의견, 노동력 제공 등이 참여 가능한 부분임.

> 강병길 소장

- 연구 과제가 무상 지원이 아님. 무상일 경우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것, 시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공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경유해야 함. 협동조합, 순환시스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콘셉츄얼(conceptual)한 결과물보다는 내 집같이 정겨운 느낌을 주는 결과물이 바람직함.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국내 시장 진출 예정인 이케아와 비교했을 때 저가 가구로서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 단순히 20대 청년, 고시촌, 독거노인 시설에 전시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아야 할 것.

> 강병길 소장

- 연계 과제 중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이재민 주거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진행.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진지하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임. 피해지역 역시 소 집단화되어 있는 작은 사회임에도 그곳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수용자의 입장이 디자인에 반영되지 않음. 본 연구 와 관계해서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음.
- 독거 단위 대상이 너무 많음. 지체장애인이나 쪽방촌 등 대상을 명확히 결정해야 함.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노숙자를 위한 아이템을 진행한 경험이 있음. 노숙자들을 시설로 유도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전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음.

> 이재준 소장 (새동네연구소)

- 1인 가구라는 대상이 너무 포괄적임. 재난시설 활용이나 모듈에 의한 반복 아이템 등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음.
-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듈 가구는 이미 충분히 개발. 다세대, 고시원 등 모듈을 적용할 수 없는 공간에 침대나 책상, 의자 등을 최소화하고 일체화해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 필요. 1인 가구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쪽방 독거노인을 서비스를 임대하는 대상자로 분류해야 합리적은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 강병길 소장

- 전시효과만을 위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을 지양. 가변적 형태로 대상의 고유 목적이 바뀌는 것도 고려. 대상지뿐만 아니라 대상까지 책임연구자가 정해야 함.

> 이재준 소장 (새동네연구소)

- 이케아의 핵심은 좋은 품질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조립할 수 있다는 것. 이케아와 유사한 형태라면 재보관과 재활용이 용이할 것. 1인 가구 중에서도 쪽방은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1인 가구보다는 일시적 주거환경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경돈 교수 (신구대학교)

- 연구 주제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1인 가구 가구에 집중하지 않는 듯. 연구를 요구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노숙자, 독거노인보다는 1인 가구가 적합함.
- 서울시 입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정확한 대상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음.
- 생활공간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가구를 포함한 주거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음. 이케아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국적으로 담아낸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
- 도시가 해야 하는 복지사회 구현 관점에서 독거노인, 고시원, 노숙자 임시 거주 등이 필요함. 소형 주택 거주자 중 인원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공간에 대한 연구 가능.
- 금주 토요일 EBS 특집 가구 방영 예정.

> 김주연 교수 (홍익대학교)

- 이케아는 라이프스타일 연구에 강점이 있음. 성글룸도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 세분화되어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음. 소비자가 봤을 때 구매 욕구를 자극함. 이처럼 연구 대상도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범위를 좁히면 디자인 구현이 수월함.
- 기존 가구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폐기할 대상만 남음.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개념도 고려.
- 적절한 재원 지원만 있다면 쪽방촌에 가구 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

> 문찬 교수 (홍익대학교)

- 연구 대상 축소 필요.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 상태나 심리적 문제가 개개인마다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름. 보편적인 값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제한된 대상보다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가구와 생활용품, 냉난방 설비가 필요함.
-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산하려면 경제 가치를 고려해야 함. 기부, 봉사 등은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음.

> 강병길 소장

- 시스템 가구 전문가, 건축가, 패션 분야 관련자가 함께 이재민 거주 유닛을 디자인 함. 추후에 적십자사와 같이 진행할 예정. 영구적인 주거가 아니라 일정 기간 조립식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음.
- 가시적 성과물이 드러나기 힘든 연구임.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대상지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을 통해 추천을 받을 예정.

> 이경돈 교수 (신구대학교)

- 제품 생산을 한샘이나 일룸 등 국내 가구업체에 제안. 생산 유통 적용은 재단 범위 밖의 문제.
-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가치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소형 주택 사업을 하는데 디자이너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소형 주택 공사와 관련해 집중 연구를 해서 SH공사 등에서 실현하는 것이 좋을 듯.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기업 논리가 아니라 서비스 혁생, 세금 혜택 등으로 제공된다는 개념 정립이 필요함. 일반인이 사용한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임. 본 연구는 시가 약자 위치에 있는 시민들을 배려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

02 연구진 회의

> 회의개요

- 일시 : 2014.09.24.(수), 09:30~12:00
- 장소 : DDP 살림관 2층 디자인나눔관
- 참석자 : 총 10인
 - 연구진 : 양영완 교수, 이상훈 교수, 김기현 대표, 문석진 대표, 남정모, 이상필 대표
 - 서울디자인재단 : 강병길 소장, 신윤재 팀장, 강지혜 선임, 백승현 연구원

> 강병길 소장

- 앞으로 서울시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단독 거주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시민디자인연구소에서 서울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연구는 가치 있는 주제임. 메가의 의미보다는 메타의 의미로서 연구 방향과 결과물이 기대되며, 좋은 연구가 되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람.

> 이상훈 교수 (홍익대학교)

- 연구 주제를 소형 주택에서 오브제 쪽으로 방향을 좁히는 부분은 어떠한지 고려.
- 디자인연구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보고서가 되어야 하며, 쪽방촌의 취약계층에서 사용 가능한 가구시스템 디자인이 되면 좋겠음.
- 네덜란드 재학 시절 흄리스 관련한 사용자 조사 시 어려움이 있었음. 그분들의 니즈와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다르기에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어려운 부분임.
- 배려라는 측면에서의 가구시스템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간접조명, 신발 보관함, 소품, 실내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오브제트 형태로의 디자인 구현 방법을 고려.
- 가구(furniture)라는 단어는 건축, 인테리어적 접근 방법으로는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찾아 보기 힘들. 따라서 생활의 질적인 측면, 아이디어적인 측면으로서의 접근 방법을 고려.
- 독거노인들에게 감성을 불러일으켜 기분을 힐링하도록 하는 방향 고려.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기존 다른 연구와의 차별화를 가지고 싶음. 소제목 또는 부제목을 제시하는 방향은 어떠한지 제단 측에서 고려 바람. (제목의 범위와 결과물 도출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예상됨)

> 김기현 대표 (디자인메소즈)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진행 중인 계단 리모델링 사업 (서울역, 시민청, 왕십리 역사 등의 10개소)으로 시민들의 칼로리 소모를 늘리기 위한 걷기 유도 디자인 사업, 현재 생명재단, 건강기부재단 등과 서로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어 사업 방향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현재 진행하게 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디자인이 필요함.

> 이상훈 교수 (홍익대학교)

- 착한 디자인, 배려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윤리적인 책임감과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착한 제품 또는 소품을 주제로 다루도록 함.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pro bono' 프로보노는 '사람을 위한'이라는 뜻. 이를 주제로 전시한 경험이 있으며, 독거노인 등의 저소득층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헬링의 도구로서의 접근이 필요함.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개선하고 도와주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사용해 보도록 제안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유닛(unit)과 컴포넌트(component)의 개념으로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3가지 프로토타입으로의 전개함.

> 이상훈 교수 (홍익대학교)

- '노인을 행복하게 하는 디자인'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사례의 경우 65세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보면, 사용자들의 본질적 측면으로 접근한 사례로 「슬로우 레스토랑」은 은퇴 후 사회의 일환으로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역할을 함. 은퇴자들 대부분이 요리사였으며, 요리를 통한 삶의 변화를 가져옴. 메뉴, 유니폼 디자인을 한 사례임.
-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일 것으로 생각됨. 문화적 성숙도가 다르기에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물질과 비물질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가구에 감성을 넣어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방향 필요함.

> 이상훈 교수 (홍익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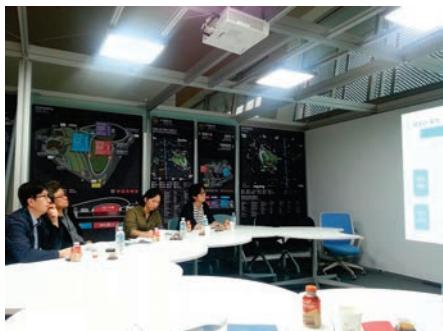
- 생활 맞춤형 MUST - ITEM : 실질적+정신적인 부분이 합쳐질 수 있는 것임.

> 김기현 대표 (디자인메소즈)

- 취약계층의 생계에 맞는 디자인이 보다 필요함.
- 아프리카 마다가스카 지역 공중위생시설 개발 프로젝트로 1인 1가구당 화장실이 없는 저소득 층 지역의 공공화장실 설치로 이는 ENG와 연계하여, 질병과 위생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물을 원활하게 공급한 사례가 있음.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공적인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싱글 패밀리, 6년 뒤엔 대세', 중앙일보, 9월 22일 자료를 참조.



03 연구 중간보고 및 제2차 자문회의

> 회의개요

- 일시 : 2014.11.19.(수), 10:00~12:00
-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7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12인
 - 자문위원 : 박혜선 인하공업대학 교수, 서수경 숙명여대 교수, 이경돈 신구대 교수
주대원 시립대 교수, 이재준 새동네연구소 소장
 - 연구진 : 양영완 홍익대 교수, 이상훈 홍익대 교수, 김기현, 문석진 디자인메소즈 공동대표
 - 서울디자인재단 : 신윤재 팀장, 강지혜 선임, 백승현 연구원

> 서수경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 환경적 측면이 다름으로 디자인 제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환경 행태론적 측면에서 대각선형은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음. 럭셔리의 반대의 디자인인기에 살아보지 않아서 의견을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연구의 의미 있는 연구.
- 정방형의 주거형식에서 대각선 형태의 구조는 재미있는 형태이지만, 환경 행태론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각선형은 다이내믹한 상업 공간은 가능하나, 누워있을 때 모서리를 보고 잠을 청하는 것은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음.
- 화장실 문제 해결 디자인은 용변 후의 해결방안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동선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제안 등이 필요한 점.
- 쪽방촌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삶의 측면이 보다 고려되는 디자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음. 러브하우스의 경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줌(러브하우스 완공 이후 거주자들은 권리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 다른 러브하우스가 아닌 쪽방 거주민의 냄새, 소음만 해결해주는 방향, 그리고 제품은 꼭 필요하며 사용 가능한 디자인이 필요함).
- 연구의 소제목은 쪽방촌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연구가 적절함.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대각선 방향으로의 공간구성에 대해 동의, 대소변은 임시방편적인 아이디어이며, 향후의 관리적 측면의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고자 함.

> 서수경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 슬라이딩 가구에 대한 제언 : 예전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벽장의 수납 형태의 침대가 좁은 공간에서는 사용에 편리함이 있었음. 현재의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의 디자인 방향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함.

> 이경돈 교수 (신구대학교)

- 기존 생활가구 측면을 벗어난 리서치 방향 좋을 것. 침대보다는 온돌을 좋아하시는 것 같음. 먼저 페니처 시스템에서 대각선 구도는 오픈의 어려움이 있어 사용되지 않음. 쪽방촌 지원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면에서는 쪽방촌에 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함. 기존의 리서치에서 생활가구 측면에서 벗어난 점은 잘 한 점.
- 소제목은 독거노인,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개선 연구로 미래지향적 연구.
소제목에 기초 생활을 위한 디자인 연구는 최소한의 미니멀한 것 디자인, 그리고 관리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기초는 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거주환경개선 위한 디자인이 좋을 듯. 생활밀착형의 단어가 적절함. 페니처 프로덕트, 스페이스 등이 좋은 방향. 따라서 독거노인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개선 연구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함.

> 주대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연구 리서치의 현황과 실태의 비주얼 맵, 리서치와 아이디어의 연계가 명확히 필요함.
전반적인 리서치 현황과 실태 분석 위주로의 비주얼 맵 방식의 현황을 보여주었으면 함. 파편화되어 있어 거기서 도출된 데이터가 아이디어 맵과의 어떠한 연계성이 필요한지 자체 검증이 필요함.
현황 분석의 기준과 요인이 왜 나왔는지, 연계가 되는 것이 명확하게 필요함.
- 콘셉트 선정에 따른 평가 기준의 방법론이 부족함 : 콘셉트 스크립트 매트릭스 활용.
현재 콘셉트는 정했으나, 콘셉트 선정에 따른 방법론이 필요한 부분임: 평가 기준, 콘셉트 스크립트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소재의 선택이 적절한가, 마감 방법, 사용의 이용 방법, 접이식 또는 기준에 대한 자체적인 선정 방안 마련, 그것의 평가 방법이 필요함.
- 연구의 향후 양산시의 평가 기준, 비용, 소재, 가공법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양산을 할 때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필요. 납품 과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생산 시 원가 절감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비용적 측면은 지속 가능한 비용 고려가 필요함, 저렴하면서 좋은 소재, 최적의 가공법, 마감 방법을 고려해야 함.
- 마인드맵을 통해 향후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함.
마인드 맵 상에서의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함. 건강, 위생적인 삶이 중요함.
향후 연구는 종합적인 체계 마련으로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할지가 필요함.

- 독거노인과 생활밀착형, 쪽방촌 단어가 들어간 내용이 결과물에 부합하며 소제목으로 좋은 방향으로 보임. 어려운 주제 연구임, 흐름과 완성도가 매끄러움, 소제목에 쪽방촌을 명시하여 보다 디자인으로서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 좋음. 독거노인과 생활밀착형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결과물과는 근접하게 보임. 서 교수님의 주거환경개선 측면, 인간 환경과 물건으로 보면 중요한 키워드임.

> 박혜선 교수 (인하공업대학교)

- 연구 범위의 명확성이 필요함

명확한 연구의 범위가 어떤 것인가? 쪽방촌>골목>계단>으로 주변의 환경을 보는데 새로운 공간의 쪽방촌으로의 연구인가? 결과적으로 방 하나 내부 개선에 집중인데 연구 범위의 명확성이 필요함.

- 디자인은 수납가구보다는 조립식의 입체적인 가구가 이상적임, 그리고 기준 공간에 가변성을 열어 두는 방향의 제시가 필요함.

쪽방촌의 크기를 고려하여 디자인적인 어프로치(approach)에 대해 좁혀서 생각했으면 함. 수납 시에는 가구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조립식일 가능성이 클 것 같음. 평면적으로 누운 것은 어려워 보였음. 대각선은 서 교수님 내용에 동의함. 가구를 제안하면 입체적인 가구가 되는 조립식 가구가 이상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함.

기준 공간과 바닥에서 깔기보다는 입체적 성향이 될 것으로 봄. 하나의 기준 공간을 마련하여 가변성의 여러 사례를 보여주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

- 기존에 사용되는 제품과의 차별점이 있는 디자인 제품이 아니기에 고민이 필요함.

효율적 수납, 샤워기 거는 것, 생활용품들을 하다 보면, 최소 주택에 조사, 일반주택의 수납과 생활 가구 중 기존에 사용되는 제품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주거환경보다는 거주환경과 생활환경적 측면이 강함.

주거환경은 건축적인 어프로치라고 생각했는데, 생활디자인 측면이 강해 보이며 주거환경보다는 거주환경, 생활환경을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재준 소장 (새동네연구소)

- 현재 연구의 진행 방향에 있어 짧은 기간에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현재의 연구 목차는 1년 정도 진행해야 할 연구로 보이지만 3개월로 기간이 짧은 프로젝트임. 그래서 제목으로 수정하려는 것 같음.
- 라이프스타일 변화 > 1인, 2인 가구 주목 > 주목한 사람 정의 소형 주택 거주자 > 생활의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가 필요 > 디자인적 측면 고려하여 시스템적인 디자인 > 보관용 가구가 아니라 > 대량생산 전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함에 그 순서가 됨. 순서가 바뀐 듯.
- 쪽방촌 방문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여기에 반영되는 디자인 결과물의 영향은 큼. 현장 방문으로 누가 사용할 것인가? 현장 방문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며, 인간다운 삶이란? 은 중요한 지점. 하지만, 향후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임.

-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이는 1, 2인 가구의 삶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에 보다 맞추어서 그 공간에 왜 거기서 그런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재단의 연구 목적과 실제 연구자와는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임. 면적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그 공간에 왜 거기서 그런 생활하는가에 대해 정의가 되어야 할 것임. 여기에서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해 보다 집중해야 함.
- 1,2인 가구: 삶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표현, 쪽방: 면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야 함. 사람을 놓고 얘기할 것인지 쪽방으로 본다면 보고 대상에 대한 보편성,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을 바꾸데 있다면 소제목으로 바꾸도록 하며 1,2인 가구의 삶을 위한 측면이라서 다시 연구의 방향이 고려되어야 함.
- 단위 사용에 있어 통일성 필요함(평 > m²).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재단 측과 연구에 대해 협의하면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함.
면적의 구분과 삶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임. 후반에 수렴하여 보완하겠음.

> 이재준 소장 (새동네연구소)

- 소형 주택과 거주자 간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부분임.
- 소형 주택은 쪽방, 거주자는 독거노인, 라이프스타일은 생활 변화, 생활가구는 시스템디자인으로의 연구지만, 주택은 공간이며, 거주자는 사람이기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거기에 따른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강지혜 선임

- 리서치 과정과 결과물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 독거노인에 대해 연구를 하셨던 부분에 있어 도움 주실 내용 검토.

> 박혜선 교수 (인하공업대학교)

- 연구의 범위가 궁금함. 쪽방촌의 개선인가? 물리적인 상황 안에서 하는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지에 대해 서로 간의 상충이 있어 보였음.
- 90%는 외부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인들이 힘든 부분은 식사임. 주로 생활하시는 부분은 식사와 도움이 되는 부분. 커뮤니티 공간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봄. 액티브한 점이 부족하기에 서로 참여하면서 식사를 만들거나 제공한다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임. 소프트웨어와의 연결이 필요함.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부분이 참고하려고 하는 측면인지를 고민스러웠음.

> 이경돈 교수 (신구대학교)

- 미래적인 측면에 대해 기획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환경개선이 연구임
개선 > 시범 사업으로 그리고 향후 확산으로 나아가려고 함. 앞으로의 독거노인의 작은 집을 만들 계획이기보다는 독거노인의 군집화의 적정 시설 또는 SH공사에서 만들 때 유닛 형태의 주거시설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 강지혜 선임

-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언 바람(주대원 교수).

> 주대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평가 기준은 콘셉트의 필터링에 어려움이 있어 10가지 정도로 공간의 편리성, 가변성, 등으로 몇 가지 않을 제시하면, 스케치와 렌더링의 평가도 가능함. 이는 향후 양산, 사출, 프레스 가공 형태로의 내구성과 수납이 가능한 형태로의 평가 기준을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음. 그것에 대한 자문은 가능함.
- 인간다운 삶은 더위와 추위의 삶에 대한 것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더위와 추위에 대한 해결로 바닥의 따뜻한 매트에 대한 고려도 좋은 방향임.
- 고독사에 대한 고려로 인간이 가지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에서의 안전에 대한 측면으로의 고려가 되었으면 함. 그것이 심리적 측면이 반영되기에 필요함.

> 강지혜 선임

-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한지?

> 이재준 소장 (새동네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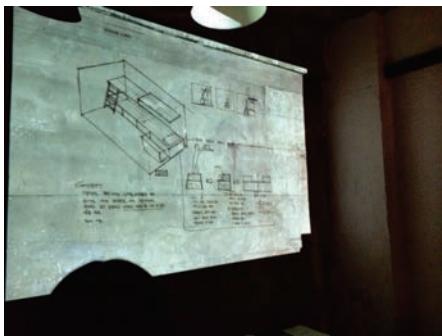
- 심리적 측면에서는 3개월 연구는 무리임. 그러나 인간다운 삶이라는 헌법적인 측면, 학문적 연구적 이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반영해야 함. 안전하게 해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음.
- 독거노인으로 정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쪽방을 전제로 하지만, 쪽방>고시원> 원룸 등 1인 가구로서 독거노인을 집중하면 좋은 방향으로의 연구가 될 것으로 봄.
- 빈방에 삼시 세끼만 넣어주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데……. 리서치를 보완하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의 연구가 될 것으로 봄.

> 박혜선 교수 (인하공업대학교)

- 기준 쪽방촌의 제안인지? 계획이라기보다는 사는 곳에 새로운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인지? 기준의 적용과 앞으로의 주택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나누어서 제언하는 방향이었으면 좋을 것.
- 향후, 독거노인들에게 가변성을 가져올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것 같음.

> 이경돈 교수 (신구대학교)

- 목차에서 향후 시스템 공급 방안보다는 노인 주거공간의 확산으로서의 제언.
보고서에서 공급 방안은 필요하지 않고,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하여 프로토타입에 따른 노인 주거 공간 확산으로서의 제언으로 진행하였으면 함.



04 연구진 회의

> 회의개요

- 일시 : 2014.12.10.(화), 10:00~12:00
-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7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8인
 - 연구진(4명) : 양영완 홍익대 교수, 이상훈 홍익대 교수, 김기현, 문석진 디자인메소즈 공동대표
 - 재단(4명) : 강병길 소장, 신윤재 팀장, 강지혜 선임, 백승현 연구원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캠페인 봉사, 시설물을 설치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 예정. 서울시에서는 없었던 사례인 듯. 복지사,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설치가 가능. 따라서 제공하는 방법,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의 진행.

> 이상훈 교수 (홍익대학교)

- 참여 유도형 콘셉트를 진행 예정. 우체통 러브레터의 개념, 패키지 형태로의 진행.

> 신윤재 팀장

- 최종 보고서의 각 장간의 내용에 있어 서로 연계가 필요함. 또한, 내년 사업 중 동주민센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 사업이 있어, 이번 독거노인과 100세 연구와도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를 위한 확산은 가능하다고 예상됨.

> 강병길 소장

- (문제 해결 및 방향) 연구의 방향으로는 수납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 깔끔한 정리가 필요한가? 수납되고 정리될 수 있는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에 중점 고민, 작은 사이즈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디자인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자료를 부탁드리며, 디자인 구현 방법 및 따뜻하고 가벼움을 불러 넣는 테마로서의 디자인 결과물이 되어야 함.
- (향후 궁극적 방향) 대상에 맞는 맞춤형으로 각개 방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음. 이 사회 시스템의 도덕적, 정서적인 가치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새로운 테마가 될 수 있을 듯, 특히 100세 시대와도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함.
- (콘셉트) 우체부를 기다리는 사람, 행복, 나눔이라는 공감 정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제공되고 소식을 나누고, 소외된 그분들에게 이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아서 전달하는 것.



05 연구 최종보고 및 제3차 자문회의

> 회의개요

- 일시 : 2014.12.17.(화), 10:30~12:00
- 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5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12인
 - 책임연구자 외 연구진 : 양영완 홍익대 교수, 이상훈 홍익대 교수, 김기현, 문명진 디자인메소즈 공동대표
 - 자문위원 : 주대원 시립대 교수, 육호준 가천대 교수, 이경돈 신구대 교수 이재준 새동네연구소 소장
 - 디자인재단 : 강병길 소장, 신윤재 팀장, 강지혜 선임, 백승현 연구원

> 강병길 소장

- 두께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 : PP 소재는 친환경이고 부드러운 것이 장점.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휘어지는 것이 단점. 적실시 하중이 확인되어야 함. 현 제품의 두께는 줄이고 칸 수를 늘려서 그 용도가 또 다른 기능이나 용도가 없는지? 고민 필요함.
- 디자인이 사회적 역할로서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 조형적 가치가 큰 것보다는 사회적 역할로서의 가능하도록 확산에 보다 신경 쓰도록 해야 함. 서울시와 공동으로 확산하는 방향 등.....
- 공중전화 부스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체통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면 좋을 것임. 사업을 보다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주변, 단체들과 협력해서 하는 방법으로 고려되었으면 좋겠음. 후속적인 작업에 보완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

> 양영완 교수 (홍익대학교)

- 설치시간에 대한 제약은 두지 않고 있음.
- 독거노인이 다양하여 하나의 시스템 모듈로는 어렵고, 현장 방문하여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형태, A형, B형, C형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거기에 맞게 합리적인 공간이 되도록 제안하는 방법.

> 이경돈 교수 (신구대학교)

- 기존 제품과 종이와의 변별점, 차이점 : 실제로 현재에도 수납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별력이 필요, 종이로 된 것이 튼튼하다 여기에 따른 변별력, 차이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급화에 대한 교육 방법 : 후원자의 기부를 통한 공급 방안이 좋을 것 같음. 보급과 확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가시적인 방법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주면 좋을 것 같음.

> 육호준 교수 (가천대학교)

- 공간 효율화 : 목적 자체가 공간적 효율화인가? 아니면 목적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과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 목표인가? 이는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공간 효율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웃이 많으신 분, 이불이 많은 분, 식자재가 많은 분, 공간적으로 배분해야 할 부분 등이 가변형의 형태가 될 수 있음, 이에 따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함.

> 주대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 제품의 제작 소요시간 : 소요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 그리고 기사분도 너무 힘들 듯. 이야기하는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면 조립시간은 최대한으로 단축되어야 함.
- 재사용 문제 : 재사용할 때의 문제는 지속 가능 디자인의 문제가 될 것.
- 단점 보완을 위한 두께 설정 : PP 소재로서 0.7mm의 특성은 좋은데, 얇다고 봄, 단점을 기구적인 측면에서는 두께는 조금 늘었으면 함. 조금 더 큰 가구에 대한 것일 때, 고주파 가공을 내부로 조금 더 채우는 방법으로 한다면 가능하며, 기구적인 측면이 좀 더 보완될 것 봄, 따라서, 보다 가볍고 강한 가구가 될 것으로 봄.

> 이재준 소장 (새동네연구소)

- 따뜻한 디자인 : 따뜻한 디자인으로서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었음.
- 공공의 역할과 시스템가구로서의 모듈화 방안 : 공공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본다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가구로서의 모듈과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봄.



참고 문헌

<단행본, 보고서 및 논문>

1. 서울시, (2014), 2030서울플랜_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 서울시, (2013), 시민 공감·공유의 서울시 열린정부3.0 종합계획.
3.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2006), 미래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예측기술에 관한 연구.
4. 서울시, (2013),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5. 서울연구원, (2012), 미래 서울2030 : 도시공간의 진화.
6. 서울연구원, (2011),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유형개발.
7. 서울시복지재단, (2012),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
8. 국가인권위원회, (2012), 동자동 쪽방주민건강권 활동보고서.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0. (사)한국도시연구소, (2009),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11. 이희연 외 2인 (2014), 저소득층 노인 밀집지구의 시·공간 패턴과 균린환경 특성, 서울연구원논문.
12. 이정관, 김준현, (2013),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실태에 관한 연구.
13. 채정은, 박소현, 변병설, (2014), 서울시 1인가구의 공간적 밀집지역과 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 15권 2호.
14. 흥성태, (1999), 보이지 않는 뿌리, 박영사.
15. 윤정일 외, (2007), 교육행정학 원론, 학지사.
16. 손정인, (2012), 빈곤층의 삶을 통한 건강권과 공공성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연재집.
17. Karl T. Ulrich, Steven D. Eppinger, (2003), Product Design Development, McGraw Hill.

<보도자료 및 정책이슈자료>

1. 서울시, (2014), 서울시 민선 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_2014~2018.
2. 서울시, (2013), 서울시 고령자 주요통계 (e-서울통계 74호), 2013.9.27.
3. 서울시, (2013), 2030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의 행복한 시민도시', 2013.9.27.
4. 보건복지부, (2012),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제7차 서민생활대책점검 회의자료, 2012.5.11.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Fouse 제72호, 2011.1.28.
6. 보건복지포럼, (2012), 노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실태와 정책과제, 2012.10.
7. 보건복지부, (2012), '65세 이상 10명 중 8명, 70세는 넘어야 노인', 2012.6.22.
8. LG Business Insight 위클리 포커스, (2010),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미래 주거 환경의 변화, 2010.11.24.

<웹사이트>

1. <http://opengov.seoul.go.kr>, 서울시 통계자료
2. <http://media.jungle.co.kr>, 2008.10.07. 자료
3. <http://www.dela.nl>
4. <http://www.droogdesign.nl>

Abstract

Research on system designs of household furniture suitable for the lifestyle of small houses

- With the focus on furniture design for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n slice rooms

The Seoul Design Foundation conducted the Seoul Alley Design Project to create the city's design assets by explor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alleys in Seoul, as well as their diversity and identity. The project was intended to come up with designs that would link people's lives with their local spaces, shed new light on the value of alleys, and establish the identity of local culture through pilot research programs.

The Seoul Alley Design Project was carried out for about four years, from 2012 until 2015. In 2012, we focused our research on onsite surveys, cases studies on alleys in other countries, relevant pilot studies, and the production of a service design toolkit. The following year, we conducted research on better design models of waste disposal systems in alleys to come up with options that would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We also held international conferences, events comprising visits to alleys, and the relevant photo exhibitions to disseminate the cultural value of alleys. In 2014, we conducted this research to enhance the diversity of residential spaces. The present research on system designs for household furniture suitable for the lifestyle of small houses was initiated with the aim of find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a true municipal service for the less-privileged, particularly senior citizens?, based on the idea that a true municip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with sincerity and a service-oriented approach.

Community design-related acts should be based on a spirit of humanism and a service-oriented mindset,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sentiments felt by people.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opose pro bono community designs to allay the feelings of alienation experienced by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n “slice rooms(쪽방)” and to find a way to disseminate such an idea as a sustainable servic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 hit upon the keyword “waiting” as a result of examining to see what little hope will be for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and established a plan aimed at bringing them “Sincere Mind (片志).”

The Sincere Mind will be contained in assembled storage cabinets made of polypropylene, which is knock-down furniture or ready-to-assemble furniture.

We chose storage cabinets for this purpose as we found that they are the thing that those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n slice rooms need most as a space for storing household items efficiently.

The role of delivering these items will be assumed by employees of local counseling centers, community service centers or volunteers.

The design of storage cabinets is based on rational and practical guidelines and the cabinets will also be sold to the public. Proceeds from the sale will be spent on the expansion of municipal welfare services. Welfare for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is a rather heavy subject, but we will try to deal with it in a light and pleasant way.

It is hoped that the Sincere Mind initiative will go a long way toward fostering a warm social atmosphere as a community design-related cultural movement in a virtuous cycle. Our small efforts will surely be able to give hope to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Sincere Mind” is thought to be a true design that aims to realize the “We Will Come to You” service, one of the leading slogans of the 3.0 Execution Plan of the op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 expect fruitful results from the said project and hope that further studies will continue to improve upon its outcomes.

**소형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생활가구 시스템 디자인 연구**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발행인
백종원

발행처
(재)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소
110-126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층
www.seouldesign.or.kr

*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활용 시 재단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ISBN 978-89-98664-28-2 13590